

교육개발



특별기획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 방학생활과 공교육의 역할

파워인터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자유학기제의 새로운 도약
1수업 2교사제가 '교실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세계의 교육

일본의 방학기간 체험활동을 위한
공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프랑스의 방학정책

교육현장 Report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학 체험활동
소중한 나를 위한 4HD 행복 충전 여름 방학

교육통계 Focus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ISSN 2005-698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5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 회 비 1계좌당 - 개인회원 120,000원 |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 의 처 지식정보화실(정보자료) | Tel. 043) 530-9245 | E-mail : kedibook@kedi.re.kr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원장직무대행 류방란

편집장 | 김은영

홍보출판심의위원 |

길혜지, 김은영, 김지수, 김현진, 박경호,

손찬희, 임소현, 조옥경, 조진일, 최수진

편집실 | 김영미

디자인·인쇄 | 디자인프리즘 02-2264-172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7년 11월(제44호, 203권)

계간등록번호 | 진천, 마00001

등록변경 | 2017년 11월 25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43-5309-234 keditor@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2017 Vol.44 No.5

교육개발



파워인터뷰

- 4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특별기획

- 12 ① 방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 존재론적 성장을 꿈꾸다
17 ② 방학 후 학력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 탐색: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5 ③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 28 ①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36 ② 자유학기제의 새로운 도약
42 ③ 1수업 2교사제가 '교실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세계의 교육

- 48 ① 일본의 방학기간 체험활동을 위한 공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54 ② 프랑스의 방학정책

교육현장 Report

- 60 ①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학 체험활동
66 ② 소중한 나를 위한 4HD 행복 충전 여름 방학

교육통계 Focus

- 72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사람중심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사회풍토가 고착화되어가면서
한국사회의 계층 간 이동 사다리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의 확대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저출산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구조화되는 현상 속에서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6개월여의 시간 동안 김광두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중요 경제 정책 결정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이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임 이후 국가미래연구원장,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난 11월 16일(목) 서울 광화문 소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접견실에서 김광두 부의장을 만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과 중점 과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 대학교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경제학자이자 국가의 중요 경제 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한국 교육에 가진 의견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방란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5명 이내), 위촉위원(30명 이내),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들로 구성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를 모델로 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 결정권을 가진 NEC와는 달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과 정합성 확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여론 수집의 세 가지 측면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김광두 부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께서 중요 경제 정책 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중요 경제 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류방란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지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자문의견을 제안하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자문회의는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민간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잘 융합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한다면,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자문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류방란 부원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의장으로 지명되신 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광두 부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과 정합성 확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여론 수집의 세 가지 측면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모니터링의 결과와 조율 및 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경제정책회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외 싱크탱크와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책을 알리고 경제 관련 국가 간 분쟁과 쟁점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청취하려고 해요. 자문위원, 온라인 플랫폼, 국민자문단, 분야별 오피니언리더와의 간담회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류방란 부원장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부의장 한국경제는 이제부터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장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사람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생산설비나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는 것. 이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의 능력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

한국경제는 이제부터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 하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의 능력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적합하게 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런 새로운 질서 하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의 능력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적합하게 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과 함께 재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류방란 부원장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도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보실 때, 교육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부의장 경제 부문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성장과 분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또 성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로 언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 간, 학과 간, 또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가정 환경이 어려워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





“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아겠지요.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중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사회풍토가 고착화되어가면서 한국사회의 계층 간 이동 사다리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 복지의 확대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아예 성공할 수가 없다면 그런 걸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 복지의 확대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류방란 부원장 교육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까요?

김광두 부의장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되겠지요. 또한 고등

학교 교육까지 실질적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교교육은 이제 실질적인 보편교육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영국, 핀란드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차원의 배려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복구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류방란 부원장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만,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의장께서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부의장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상품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80%는 넘어야 하지요. 10%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는 사람들의 능력이 높아져야죠. 앞서 말했듯이,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류방란 부원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 (mismatch) 문제가 지적되곤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김광두 부의장 일자리의 구조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자리는 글로벌 시장, 서비스 지식산업, 네트워크, 프로젝트, 파트타임과 아웃소싱, 사회적 일자리, 일터의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창의성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시스템은 창의성을 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경쟁과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적합하게 커리큘럼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Digital 기술의 연결과 응용이 새로운 흐름의 특징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의 과정도 학제 간 연결과 융합이 반영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대학의 전통적인 학과 간 칸막이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학과의 개념도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복합적 개념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방란 부원장 예.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사람중심 경제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도 교육은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저출산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교육기관들의 구조조정, 평생교육과 정규교육 간의 관계 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경제사회의 역동성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다원적 문제들을 분석하여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내놓아야 할 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광두(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5년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했으며 정년퇴직 후에도 동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한 '서강학파' 출신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이다. 주요 경력으로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 국가미래연구원장,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교육개발 11~12월호 특별기획의 주제를 '방학'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방학에 관심을 둔 기사나 글을 보면 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번 교육개발의 특별 기획에서는 방학과 격차라는 이슈를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제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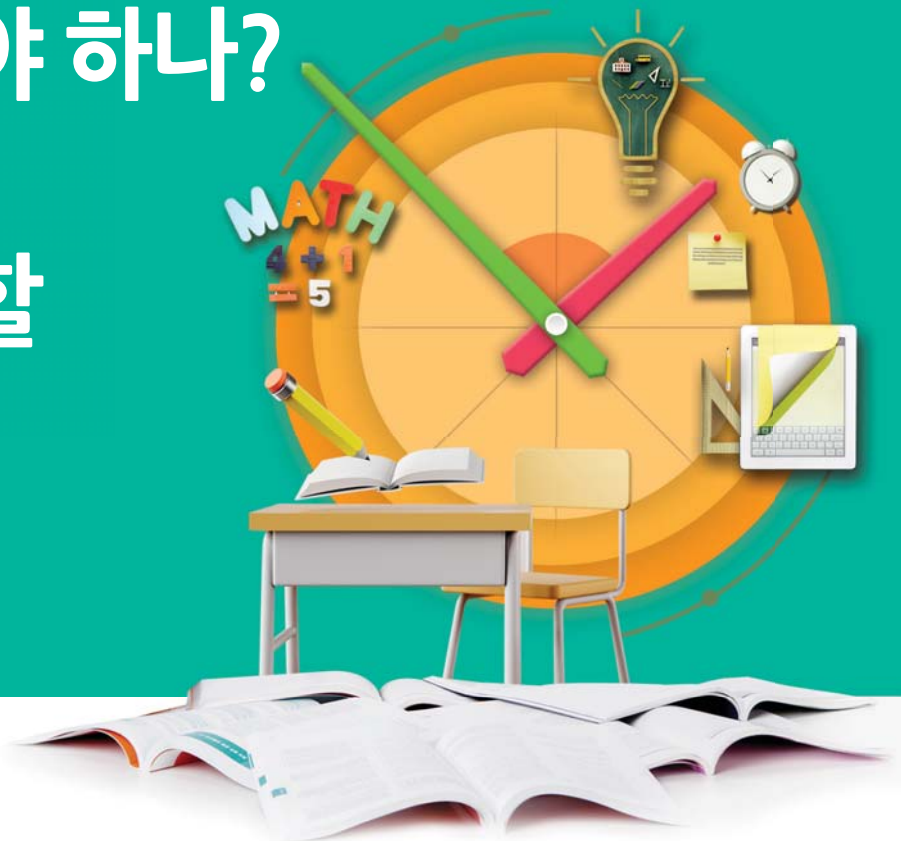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국내 교육 상황을 감안한 고등학교의 방학은 열외로 치더라도, 봄 방학까지 포함하여 70일 이상의 기간을 초·중등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보내게 된다. 물론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선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력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 가정에서의 방학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입시 주요과목의 보충학습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수요는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로 대표되는 사교육 영역에서 충족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의 학부모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자녀의 보충학습 참여 외에도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자녀에게 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역량'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적합한 인재 양성'과 같은 용어들이 교육에 널리 확산되고 활용되면서 자녀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부모의 바램이 투영되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족한 학업보충이던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역량개발이던 이러한 트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은 맞벌이 가정과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 방학생활과 공교육의 역할



저소득층, 그리고 교육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일 것이다. 학업지식이 평가의 주요 요소였던 지필테스트에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일정부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학생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요즘 사회에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교과목 지식 외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학생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초·중등 학생들은 방학마다 수학·영어 학원을 다니며 보충·선행학습을 하는 것 외에, 박물관, 미술관 견학, 각종 공연관람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숙제처럼 치러지는 가족여행, 경쟁력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얻기 위한 엄마의 출서기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방학에 주목한 미국 교육학 분야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방학기간의 학습저하 문제에 주목하였다. 학년이나 교과목 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기 초에 치른 동일한 시험을 여름방학 직후 다시 시행했을 때 학생들은 더 낮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Cooper, 1996). 이를 지칭하는 ‘여름방학 학습손실(summer learning loss, summer academic loss)’이라는 용어는 이미 미국 학교와 교육 연구에서는 널리 확산된 개념이다. 용어가 말해 주듯이 초기 ‘여름방학 학습손실’에서 주로 관심을 두었던 주제는 학습저하의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방학을 보내는 방식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즉 고소득층의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 성찰이나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관심이 높은 국가의 교육정책 목표는 대체로 ‘수준 높은 교육성과 도출’과 ‘교육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관련이 깊다. 수월성과 형평성의 추구는 정책목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시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서로 배타적이기까지 한 이 두 가치를 추구하는 그룹은 끊임없이 경쟁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화된 격차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학업 성적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는 웃지 못할 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교육격차문제는 특히, 오늘의 차이가 미래 개인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본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목표 및 관심사 중 하나 역시, 심화된 격차의 간극을 줄여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방학을 얘기하면서 교육정책 목표추구의 서로 다른 포지션이나 격차라는 문제를 끌어 들인 이유는,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수업을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는(구글사전) 방학이라는 기간에 대해 우리의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는 펼쳐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교육을 얘기할 때 방학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가정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학교수업과 교육이 더 이상 교과목 지식의 전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있고, 미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교육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오늘날,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공교육의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교육개발 특별기획은 방학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



방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존재론적 성장을 꿈꾸다

이상은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빈 여백으로서 남아 있는 방학의 존재에 대해 묻다

학교의 시간에는 방학이 있다. 방학(放學)은 그 의미 그대로 '배움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학교의 시간을 이미지로 상상해 보면, 학기 중의 시간은 '교과'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사 등 수많은 교과 내용과 근래에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등의 교과 외 활동으로 뻘뻘하게 채워져 있다.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과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차서 비대해진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교육적인 시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이 시간에 무엇을 더 가르칠까?', '어떻게 시간 배치를 바꾸어 볼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방학은 그냥 비어 있다. 이 또한 학교교육을 메우는 시간의 일부이지만, 없는 것처럼 빈 여백으로 텅그러니 존재한다. 물론, 빈 여백으로 남아 있는 방학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배움에는 쉽이 필요하고, 밖으로부터의 배움 이후에는 스스로 익힘의 시간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다만, 배움의 시간이든 쉬의 시간이든 모두 더 나은 존재로의 성숙의 시간임을 고려할 때, 그냥 빈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방학이 성숙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조심스럽게 던져 본다.

방학에 '존재론적 성장'의 걸을 입히다

방학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이 되도록 아름다운 걸을 입힌다고 할 때, 나는 '존재론적 접근'에 주목하고 싶다. 존재론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말해질 수 있겠지만, 일

반적으로 '존재에 대한 경건한 사유'라고 평가되는 하이데거의 철학에 근거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난해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일면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접근의 의미를 쉽게 말해보면 그것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학교교육에 주는 함의는 무엇보다 기존의 '지식', '앎'을 강조하던 인식론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존재'로 세계를 살아갈지를 자각하며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있다. 학생들이 방학이라는 쉬의 시간 동안에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앎의 추종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교육에서 존재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는 탈맥락적으로 말해지는 허울 좋은 소리는 아닌 듯하다. 이것에 주목하는 배경은 최근에 자주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융·복합 시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 담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현 세계를 둘러싼 변화의 양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Barnett(2000)은 이러한 사회의 특징을 '초복합성(supercomplexity)'이라고 부른다. 인류는 태고 적부터 늘 세계의 변화 속에서 존재해 왔으나, 최근의 '초복합성' 사회에서 직면한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풀리지 않는 질문이 제기되며, 나름의 답을 찾고자 노력하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더 미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교해 보자면, 과거 '복합성'의 시대에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던 반면, 최근에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완전하게 풀 수



없는 것들이며,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해석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인류는 알면 알수록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혼돈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 문제나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것은 풍부한 '지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제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며, '불확실성'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의 구체적인 존재됨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한 세계에 둘러싸인 인류가 겪는 경험은 '불안', '염려', '혼돈', '연약함'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내-인간은 그동안 세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마법의 열쇠라고 여겼던 '지식'의 가치에 대해 다시 묻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늘 '지식', '앎'을 강조해 온 이면에는 세계의 확실성이 가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오랫동안 인류는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세계를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세계를 '알 수 있는 것', '예측 가능한 것', '조작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 왔다. '지식'은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요긴한 수단이자 또한 그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뜻대로 조작하기 위해 지식은 오랫동안 가장 가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막다른 상황에 봉착한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설 무렵부터 인류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태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겼던 세계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놓인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파생되는 불안감을 떠안고 알 수 없는 세계 속을 의연하게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초복합성 시대에 교육의 존재론적 접근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존재론적 성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Barnett(2009)은 이것을 '성향'과 '자질'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한다. '성향'이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관계하는 경향성이자 세계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학습 의지(a will to learn)', '참여 의지(a will to engage)', '경청 자세(a preparedness to listen)',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탐험 자세(a preparedness to explore, to hold oneself to new experiences)', '앞으로 나아가려는 투지(a determination to keep going forward)'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자질'이란 이러한 성향이 발현되는 양상으로서, 개인의 인격적 측면과 관련된다. '용기(courage)', '회복탄력성(resilience)', '사려 깊음(carefulness)', '정직성(integrity)', '자기 단련(self-discipline)', '타인 존중(respect for others)', '개방성(openness)', '관대함(generosity)', '진정성(authenticity)' 등이 자질의 구체적인 예이다. 요컨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존재론적 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 놓여진 이상 본인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막연한 불안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성향과 자질을 키워주자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존재론적 성장을 방학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자. 사실상 학교교육의 존재론적 접근은 비단 방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학교 교육과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기 중의 수업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미 학기 중의 시간은 과도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로 넘쳐 나고 있으므로, 그동안 거의 '공백'으로 내버려둔 방학이라는 시간부터 존재론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본다.

방학의 실상을 들여다 보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학은 어떤 시간으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주위에서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방학동안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 시간을 메운다. 학교에서 배웠던 혹은 앞으로 배울 지식을 단기간에 더 많이, 더 깊이, 더 빨리 배우기 위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 경우 방학이 쉬의 시간이라 하지만 학교에서 학원으로 공간이 달라졌을 뿐, 그 시간은 어쩌면 더 약속빠른 학습을 위한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학동안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원을 찾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학동안 빈 집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을 피하고자 학원에 의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둔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방학의 쉬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안락한 '쉬'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학부모도 학생도 차선책으로 맡겨질 곳을 찾아 학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나마 학원에라도 맡겨질 수 있는 학생은 행복한 것일지도 모른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아이들은 오롯이 방학의 쉬를 집에서 소외된 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방학이라는 빈 여백은 각 가정의 경제적 자본의 양과 문화적 질의 차이에 따라 향후 이어지는 학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공백으로 비워둔 방학이라는 시간은 학생들이 제각각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교육 질의 계층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나에 따라 교육 질의 계층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에 주목해 보자. 성숙을 지향하며 모인 학교이건만, 근래 학교에서 일어나는 관계 문제는 도를 지나친다. 경악할 정도로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 왕따를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깊어가는 불신 관계 등은 그 단적인 예다. 이러한 사건들의 진행을 학교의 시간적 흐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한데 뒤엉켜 생활하는 학기 중에 싹 트고 커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방학이라는 공백 기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덮어 진다. 학교는 문을 닫는다. 학기 중에 생긴 불온한 관계는 굵은 상태 그대로 당사자 각자의 상처와 몫으로 남겨진 채 휴식기에 들어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지식의 위상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식의 독점권을 가졌던 과거의 학교와 달리 근래의 학교는 지식의 가르침에서 그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학생 존재에 대한 보살핌, 사람과 사람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학교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의 문제는 방학이라는 단절된 시간 동안 자연 치유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증세를 악화시키는 방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즉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방학이라는 시간은 그저 놓아두는 단절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의 형성, 뒤틀림, 왜곡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연속적인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기와 방학의 뚜렷한 단절적 시간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방학이라는 쉬의 시간은 이러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학기 중의 시간은 엄청난 지식의 양을 배우며 평가의 부담을 감당하느라 가까이 있는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난 방학의 기간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 자신의 존재됨을 성찰해 보고,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타자의 얼굴을 진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면 그 효과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방학, 존재론적 성장, 그리고 학교의 역할을 새롭게 상상해 보다

방학의 존재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린 이 시점에서 한번쯤 방학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흔히들 학교를 산업 시대에 고안된 제도라고 평가하듯이, 그 시간적 배치 또한 학기와 방학이라는 단절된 이분법적 구도로 짜여져 있는 것도 근대적 사유의 유물일 수 있다.

학교의 시간 배치를 조금 달리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 학기 중은 공부 시간, 방학은 쉼의 시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학기 중에도 놀이와 쉼의 시간을 늘리고, 방학 중에도 존재론적 성장을 향한 배움의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이브리드형 시간 배치를 고안해 보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이때의 방학은 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을 배우는 대신, 다양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서 학생들이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력과 ‘용기’, ‘진정성’, ‘정직성’, ‘회복탄력성’ 등의 인격적 자질을 기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타인(친구,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의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초복

합성 시대에 교육의 존재론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학이라는 시간은 이를 위한 절호의 시간일 수 있다.

물론, 존재론적 성장을 지향하는 방학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사회 제도의 일환으로서 여전히 관료적인 행정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또한 학교의 상황도 제각각임을 감안할 때, 특정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안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쯤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그냥 ‘빈 여백’으로 두었던 방학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존재론적 성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작은 연구와 실천들이 모이면 변화의 동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학, ‘생기를 잃은 지식’의 배움을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존재적 성숙’에 한 발짝 더 다가감으로써 학생들이 불확실한 세계를 의연하게 살아나갈 힘을 얻는 시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Barnett, R.(2000). Supercomplexity and the curriculum.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5(3), 255-265.
- Barnett, R.(2009). Knowing and becoming in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4(4), 429-440.
- Barnett, R.(2012). Learning for an unknown future.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1(1), 65-77.



방학 후 학력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 탐색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 연세대학교 강사





우리나라 학사 일정은 3월에 새 학년의 1학기가 시작하고 7월 중 하순에 여름방학이 실시된다. 3~4주 정도의 여름방학 후 2학기를 보내고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을 거쳐 다음 해 3월에 새 학년이 시작한다. 최근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5월 어린이날 아버지날 전후와 9월이나 10월 추석연휴 전후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학사 일정이 추가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방학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하고 개인의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학이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교 공부를 위한 선행 학습을 하거나 심화 학습을 하는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학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학생들은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데 더욱 뒤쳐진 출발점에 설 수밖에 없다. 또한 방학 동안 정규적인 학습의 기회로부터 멀어진 학생들은 학기 중 학습한 내용 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 학력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방학 이후에 더 크게 벌어지는 학력 격차에 대한 본격적 연구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학 중 일어나는 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적인 노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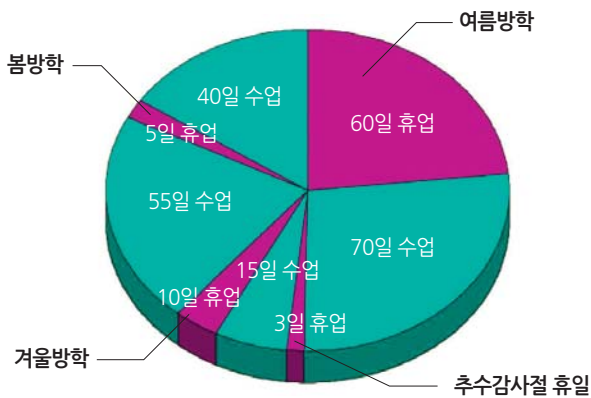
미국의 학사일정과 방학 후 학력손실 문제

미국은 여름방학이 긴 학사 일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년이 끝나고 다음 학년이 시작하는 사이에 실시하는 긴 여름방학 동안 일어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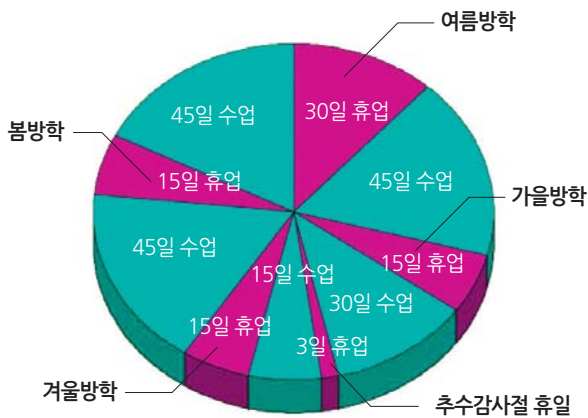


learning loss)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방학동안 일어나는 학력 손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속한 학생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종, 계층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름방학 동안 일어나는 학력 손실이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방학 동안의 학습에 관련된 경험차에서 나온다.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비슷한 속도로 학습하지만 여름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의 학습 역량과 학업성취도는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Alexander, Entwisle, Olson, 2007)

여름 방학 동안에 일어나는 학력 손실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악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긴 여름 방학을 나누어서 단기방학을 학기 중에 여러 번 실시하는 연중 학사일정(year-round, balanced



[그림 1] 전통적인 학사일정



[그림 2] 연중 학사일정

calendar)으로 학제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미국 46개 주에서 연중 학사일정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며, 2011-2012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 중 4.1%의 학교가 연중 학사일정을 실시하고 있다.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3/tables/dt13_234.12.asp)

전통적인 학사일정의 대안으로 등장한 연중 학사일정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3개월에 이르는 긴 여름방학을 분

산하여,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겨졌던 여름 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atall, Cooper, 그리고 Allen(2010)은 학교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과 학사일정 확대 정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1985년부터 2009년도의 기간 동안 발표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방학은 학습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휴식의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여행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름방학 동안의 학력 손실로 인하여 새 학년 초에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가르쳐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름 방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거나 높이고 다음 학습 단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름방학 체험활동의 참여현황과 유형

사회경제적인 계층의 차이는 학생들의 방학동안 참여하는 체험의 내용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후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참여하는 활동은 도서관 방문부터 여행 등 다양한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위층에 속한 학생일수록 여름방학의 체험 활동이 다양하고



<표 1> SES*에 따른 여름방학 기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초등학생 이상)

SES	도서관	서점	국립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	유적지	콘서트	여행	여름캠프
합계	64.8	53.0	55.1	38.9	61.2	39.9	24.4	75.2	20.4
낮은 SES	46.4	30.7	43.6	19.5	45.0	21.1	13.6	53.7	5.4
중간 SES	66.2	52.8	57.1	38.0	63.7	41.4	23.3	76.9	18.4
높은 SES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출처: 미 교육부, 국가교육통계센터, 유아종단연구, 1998-99 유치원그룹(ELCS-K)

* SES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Socioeconomic Status의 약어로서, 사회에서 수입, 직업, 재산, 거주지역, 그리고 교육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질과 양, 가정 내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양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으로 반영되어 개인의 발달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참여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ces.ed.gov/pubs2004/2004037.pdf>)

이렇듯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여름 방학 동안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은 여름 캠프나 체험 활동에 드는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학업보충을 위한 학습활동 참여도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긴 여름 방학 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력 손실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이는 학기 중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방학으로 인한 학력손실을 포함한 자아성장 등의 결손가능성에 주목한 미국에서는 여름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여름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 주체는 학교가 아니고지역 사회의 레저를 담당하는 Park District나 YMCA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름 캠프는 학습적인 면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의 목적과 야외 활동(수영을 비롯한 체육 활동 등), 미술이나 연극, 공작 등의 창작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 학습과 가장 관련이 많은 활동은 각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여름 읽기 프로그램이다. 여름 읽기 프로그램은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으나 등록된 학생들이 일정한 숫자의 책을 읽으면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지역의 학교에서 권장하는 여름 읽기 책 목록에 속한 도서를 읽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름 읽기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공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습 능력에 관한 프로그램은 주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교의 운영이다. 여름방학 동안 제공되는 여름학교는 전통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기 위한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재수강 등의 방법으로 졸업율을 높이고 졸업준비를 시키기 위한 장치로 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질 좋은 학습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점을 미리 이수하기 위하여 혹은 상대적인 학습 부담이 없는 여름방학 동안 선수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여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학 후 학력 손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 Elevate Math 프로그램

여름방학 후 학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밸리 교육 재단 (Silicon Valley Edu-

cation Found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Elevate Math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서부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Elevate Math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 수학 학력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는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13,000여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Elevate Math 여름 프로그램이며 학기 중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Elevate Math Plus 프로그램이다. (<https://svefoundation.org/programs/elevate/>)

Elevate Math 여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학년에서 10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중 평균 학력 수준에 겨우 도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중 19



일 혹은 24일 동안 집중 여름 개입 프로그램(intervention)을 실시하여 다음 학년의 공통의 수학 교과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levate Math 여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2014년 여름, 실리콘 밸리 교육 재단과 서부 지역 교육 실험실(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West), 몇몇 실리콘 밸리의 학군들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대수학(algebra) 준비성, 그리고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Snipes, et al., 2015). 연구 결과 Elevate Math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 학업 성취도와 대수학 준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levate 수학 여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여름 학습 손실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수학 학습으로 인하여 수학 학업 성취도는 향상했으며 여름 동안 수학 학습을 중단하는 것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두 가지 결과가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대수학 학습 준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학기 중에 추가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름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Snipes, et al., 2015).

● BELL의 여름 학습 프로그램

또 다른 대표적인 여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BELL(Building Educated Leaders for Life, www.experiencebell.org)이다. 이 단체에서는 미국 대도시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omers 등(2015)은 2015년 BELL에서 제공하는 여름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개의 학군을 대상으로 여름 학습 증진 프로

그램의 효과를 연구했다. 원래 BELL은 주로 취약 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여름 학습 프로그램을 중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BELL의 중학교 대상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 학년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6학년에서 8학년 학생 중 학력 수준이 2년 정도 뒤쳐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문해 능력과 수학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도 기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BELL의 여름 학습 프로그램은 하루 6시간 반의 학습을 5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학습적인 면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학습이나 초청 인사 강연, 그리고 지역 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여름방학 동안 실시되는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연구한 사례라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표본의 숫자가 적긴 했지만 BELL은 계획에 따라 5주 동안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했고 학생들의 참여가 자발적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출석율을 기록하였다. BELL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다음 학년도에 입학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높은 수학 성취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읽기 능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기부여와 같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타 변인들이 여름 학습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연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하겠다.

● Rhode Island 주 프로그램

주차원에서 여름 학력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Rhode Island 주를 들 수가 있다. Rhode Island 주는 2008년 주차원으로 정책입안자, 교육감,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던 단체들(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YMCA 등), 그리고 각 비영리 재단의

관계자들, 주 의회, 주 교육부 관계자들을 모아서 Rhode Island에서 여름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에서 투자를 받아 자격이 있는 교사와 지역 사회 교육자들로 하여금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도록 하였다.

혁신적인 학교 외 프로그램의 개발은 민간단체의 투자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밀접한 협력 관계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Rhode Island에서는 BLAST 프로그램과 주도인 Providence Afterschool Alliance Summer Scholars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BLAST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6주의 기간 동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은 자격이 있는 교사와 지역 교육가들의 협력으로 설계되었다. Providence Afterschool Alliance Summer Scholars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 분야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인 분야와 민간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Greenman, 2015).

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미국은 여름 학력 손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여름 방학 기간 중에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여름 학력 손실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 격차가 커지고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가 실제적인 교육 불평등 해




소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김경근, 2009). 따라서 방과 후 혹은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습 손실 내지는 학업 정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방학이란 학습을 잠시 쉬고 다음 학기 혹은 다음 학년을 위해 재충전하는 기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학습으로 인해 오히려 학습 피로도가 증가하는 기간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탈북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 등 취약 계층에서는 학력 손실이 발생하고 학력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어 반드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방학 기간 동안 집중 학습이나 체험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선 공교육 기관 등의 주도 하에 교육 관련 지역 단체, 그리고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 기관, 평생교육원, 자선 단체, 민간 장학 재단 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습 중심, 체험 중심, 진로 탐색 중심 등의 분야에서 질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초, 중등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각각 자세하게 분석하고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요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시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 계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질 좋은 여름 방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방학 동안 개설되는 집중 학습 프로그램의 질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력 손실을 막는 것이 목표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Elevate Math 프로그램처럼 한 과목에 집중하여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다음 학기와 새 학년의 학습 여정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 방학 동안에 일어나는 학력 정체 내지는 학습 손실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공동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관련 분야에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보수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lexander, K., Entwisle, D., & Olson, L. (2007) Lasting consequences of summer learning ga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167-180.

Greenman, A. (2015) Rhode Island's innovative solution to summer learning loss. *The State Education Standard*, January. 24-27.

Patall, E., Cooper, H., & Allen, A. (2010) Extending the school day or school year: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1989-2009)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0, 401-436.

Skinner, Rebecca (2014) Year-round school: in brief. <https://fas.org/sgp/crs/misc/R43588.pdf>

Snipes, J., Huang, C., Jaquet, K., & Finkelstein, N. (2015). The effects of the Elevate Math summer program on math achievement and algebra readines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Evaluation and Regional Assistance*. https://ies.ed.gov/ncee/edlabs/regions/west/pdf/REL_2015096.pdf

Somers, M., Welbeck, R., Grossman, J. B., & Gooden, S. (2015)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n academic summer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https://www.mdrc.org/sites/default/files/Bell_FR_0.pdf

김경근 (2009) 방과후 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교육사회학 연구*, 19, 1-27.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

최시영 · 서전고등학교 학부모





‘방학’이란

내 어릴 적 방학에 대한 기억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방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들도 있어서 늘 익숙한 단어이기도 했지만 네이버에 “방학”을 검색해 봤더니 몇가지 정의가 나왔는데, 특히 다음의 정의가 눈에 들어왔다.

“방학”이란 ‘학업을 쉬다’라는 의미로 학교에서 학기가 끝난 뒤에 수업을 한 동안 쉬는 일이나 그 날들을 가리킨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한 양의 과제를 내 주는데, 그것을 방학 숙제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방학 중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위키백과)

요즘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위에 언급된 ‘방학’에 대한 정의 맨 마지막 구절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방학을 대부분 방학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부모 세대의 방학 추억

내게 방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시절 방학 내내 친구들과 어울려 딱지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등으로 놀기 바빠 실컷 놀다가 개학 하루 전에 일기 몰아쓰기와 그리기나 만들기 한 두 개 정도를 해 갈까 말까였던 것 같다. 당시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방학책도 방학 시작하는 날 ‘생활계획표’ 하나 덜렁 그려놓고 어딘가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개학할 때 찾느라 허둥대다가 그냥 학교에 갔던 기억들도 많다.

중고등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같이 과외나 학원이라는 곳은 거의 없기도 했거니와 더러 있었다고 해도 얼씬도 못 해봤기 때문에 마냥 친구들과 어울리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다.

요즘 우리 아이들 방학, 현실적인 고민들

고2 딸 고1 아들 연년생 둘을 키우면서 초, 중, 고 매 시기 아이들의 방학에 대한 기억은 나의 어린시절 방학 생활과는 사뭇 달랐다.

아이들 낳아 키울 때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로 부부가 맞벌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 방학이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다행히 우리는 모시고 살던 어머니께서 봐주거나 처가에 맡겨 주변에 몇 안 되는 선택받은 케이스였다.

방학 때 비교적 자유롭게 피아노, 기타, 바둑, 농구, 검도 등을 했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휴대전화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려하지 않은 탓인지 지난 여름방학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 모두, 아이의 친구들이 내신과 수능을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기숙학원을 가거나 국영수 단과 학원을 등록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것과는 달리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 압박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학교를 선택할 때도 교육혁신을 추구하며 새로 개설된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켰지만,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입학식 때부터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제발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학기중에는 몰라도 방학중에는 불안해진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에 해 오던 대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반 이상 이었고,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웠다고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몇몇 학부모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기숙학원을 알아보는 눈치였다. 학교에서는 의욕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에

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심 학교급식까지 제공하였으나, 여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신청률 저조로 폐강되었다고 들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웬만큼 했었던 아이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성적이 저조한 것에 실망하고 학부모들이 내신과 생활기록부 관리 등에 전보다 예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외면하고 기숙학원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자력이 약해지는 방학기간의 딜레마, 벗어나기


대학 입시 위주의 현재 교육 시스템과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 아이가 다니는 자율형 학교에서처럼 방학까지도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맞게 애를 쓰는 학교들이 있다. 일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학교도 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이 저조할 수도 있고, 초기 시도여서 새로운 변화가 어설퍼 실망할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 변하기 전까지 과도기에는 나아가려는 힘보다 종래대로 되돌아가는 힘이 더 셨지 모른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헛갈리고 교사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새로운 시도만 믿기에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와 종래와 같은 학력 둘 중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나는 우리 집 아이들이 다니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와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기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들을 직접 목격한다면 나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끼지만,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기 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되 방과후나 방학기간에는 학원에서의 사교육과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학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증폭되기도 하는 것이다.

불안한 부모의 영향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은 갈지자를 걷는 셈이 되는 것 같다. 방학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활동, 특히 적성 활동을 학교나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안한 학부모들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아이들 교육문제로 함께 의논하고,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이 과정에서 대입제도를 포함하여 새롭게 설정한 교육방향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바람은 아이들 방학 동안만이라도 부모들의 직장 근무가 탄력적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한때, 아동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는 게 좋다고,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여러 매체와 사회 운동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정책 당국이 권장하였지만 정작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이 연동되어질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등한시했던 과거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라서 하는 말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¹⁾

손찬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본 원고는 손찬희 외(2017)의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화두인 4차산업혁명에 있어 성공의 열쇠는 ‘유연성’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유연한 교육시스템은 4차산업혁명의 상대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UBS²⁾, 2016). 이러한 맥락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유연화’를 설정(교육부, 2016)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등교육에서 지금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추진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1~3차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의 특징과 파급력으로 인해, 학생들을 미래 대학생활 및 직업생활에 준비시키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특수목적고로의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과다 경쟁,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학점제를 자율형 공립고 및 사립고에 우선 시범 적용하고 일반고로 확대하는 추진 일정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중에서 내신성적 평가 방식 전환과 재이수 및 졸업시기 연장 등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접근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명분이 분명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집중하는 선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2009년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기점으로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정, 성취평가제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도입, 교과교실제 도입, 대입전형의 변화 및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교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충족은 물론, 그러한 요건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체제를 포함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입전형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종합적인 방안 모색 접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점제 도입의 개념적 요건 충족, 둘째는 학점제 개념적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셋째는 대입전형 연계이다. 각 영역별로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점제 도입 요건 측면의 쟁점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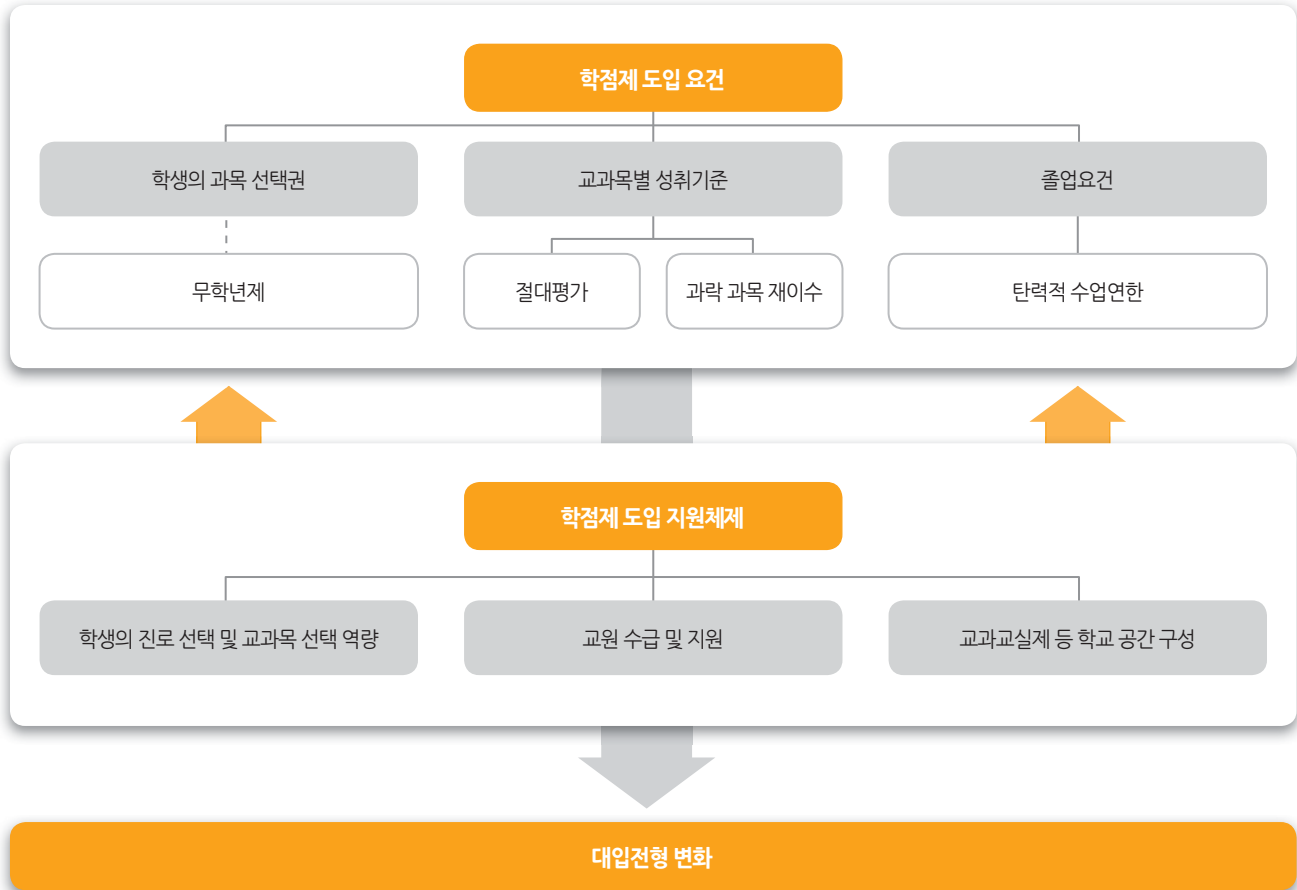
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의 진급과 졸업과 관련하여 그것이

2) 'Union Bank Switzerland'의 약자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위한 4차산업혁명 관련 white paper를 발간함.



[그림 1]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 영역 및 내용



‘학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년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학년제는 특정 과목 이수에 실패했을 경우에 해당 학년 과정 전체를 재이수해야 하는(최정희, 2014에서 재인용) ‘유급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학년제 하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보장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개설 희망 과정과 실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과정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학교 내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은 교사의 수업과목 증가에 따른

수업 준비 및 출제 부담,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수급 어려움 등이 제기된다(정광희 외, 2016:135). 학교 내 과정 선택형은 과정의 경직성과 미래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의 한계, 학생들의 진로 유동성 및 미래사회의 유동적 진로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 진로집중과정과 대학 전공 선이수 과목 대응 조건 형성 기대의 어려움, 경상, 법정, 의약학 과정 등 선호 과정이 있을 경우, 과정 간 학생 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황규호, 2015:53-55). 교과중점학교는 학생선발, 별도의 교육과정 편성, 교원 수급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부담과 함께 이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같은 학교 내 다른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전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학교 내 다른 학생도 이 과정과 관련하여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등 운영상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이동 시간 및 이동상의 안전 문제, 정규교육과정 상의 선택과목이 아닌 순증을 통한 교육과정 추가 이수로 인한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등급산출 부담 완충을 위한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수혜 학생 제한, 강사초빙의 어려움, 학사일정 조정 어려움, 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비 등의 문제가 운영상의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정광희 외, 2016:139). 셋째,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은 주로 대안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규교과목에서 전문적인 강사 인력풀 확보가 어렵고 강사 채용 조건에서의 제약이 크며,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학교의 여건에 맞춰져야 가능하다고 여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여전하다. 그로 인해 교육과정 외 특별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지역사회시설을 단체로 견학하는 등 일회성 행사 또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실정이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정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정광희 외, 2016:156). 넷째,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운영은 2012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 콘텐츠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작된 ‘온라인수업’³⁾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수업’은 당초 취지인 ‘선택 과목 개설 확대’보다는 전편입 등으로 발생하는 미이수 과목 이수 또는 보충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손찬희 외, 2014). 현재 온라인수업 운영은 명확한 평가 방식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아직 명확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 부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를 일부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내용에 과목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성취수준’을 포함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단위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단위제는 해당 과목에서 학생이 어떤 수준을 보이더라도 일정한 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를 한다면 그 과목의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나. 교과목별 성취기준 적용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중의 하나는 ‘성취기준’에 따른 과목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행 교사의 학생평가는 학생 간의 상대적 서열에 의한 학생평가 결과 산출 방식인 기준참조평가의 교육 내·외적 부작용에 따라 준거참조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성취평가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입선발전형을 위한 총괄평가로서의 활용 방안은 유예되어 성취평가제에 의한 과목의 성취등급과 상대9등급제가 병행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3) 교육부 이러닝과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광희 외(2012)는 온라인수업을 “방송·통신수업의 한 형태로서, 면대면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 체제”(p.2)로 정의함.



성취평가제의 평정결과가 대입선발전형의 선발적 기능에 대한 평가 정책적 모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에서의 ‘성적부풀리기’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각 등급 간 학생의 성취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수준 설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석차9등급 상대평가의 병행 지속 여부나 절대평가의 단계적 또는 전면 적용 여부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는 등 평가 정책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 교과목별 이수기준 및 졸업요건

학점제 도입은 수업일수로 학습의 ‘양’만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의 실질적인 교과목별 학업성취, 즉 학습의 ‘질’을 평가하여 졸업요건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과목별 이수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이며,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졸업요건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졸업요건으로는 취득해야 하는 최소학점과 더불어, 고등학교 단계의 학력(學力)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졸업시험’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졸업요건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졸업요건을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 졸업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졸업시험 합격 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할 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진급 및 졸업의 요건인 ‘출석일수’를 졸업요건으로 포함하여 유지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졸업요건으로서 학점의 취득 측면에서는 최소이수학점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현행 이수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고등학교의 최소이수단위인 180단위(창의적체험활동 이수 단위

제외)에 상응하는 180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단위’를 ‘학점’으로 기계적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과목별 성취기준 적용에 따른 과락 과목 발생, 이로 인한 학생의 학업부담과 졸업시기 지연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80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학점제 도입 지원체제 측면의 쟁점 및 과제

가. 학생의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교과목 선택 역량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이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정, 즉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먼저 선택 교과목의 운영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개개인의 학생 소질,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교사수급, 교사의 수업 시수, 교실 확보, 일정한 클래스 사이즈 등과 같은 학교 여건을 우선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는 달리 교과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이수하기 편한 과목이나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는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 학생이 교과목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과 선택 역량에 대한 우려는 대입준비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 자기 적성이나 소질, 진학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학진학을 당연한 코스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진지하고 충분히 고민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부모, 학교 등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계획이나 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교과를 선택하라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접근일 수 있다.

나. 교원인력 수급 및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는 일선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원양성기관,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고교학점제의 개념 규정과 성격, 운영 방식 등에 따른 관련 변인인 학생평가방식과 교사평가권, 학생과목 선택, 수능제도 관련성 등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교원의 직무수행과 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교직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영 구조이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입장에서 우리 학급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별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운영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교원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교원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세부 관련 변인이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교원인사정책은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임용, 연수, 평가, 보수,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고등학교체제를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교원의





직무수행조건과 역할 변화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 교원입장에서 정책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는 직무수행 양과 어려움 등의 증감으로 작용하여 학생교육지도력 발휘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고교 교사들이 학점제 전환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조건들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가 학점제 성패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다.

다. 교과교실제 등 학교 공간 구성

전국의 교과교실제 학교의 공간구성은 지역에 따라서 혹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달리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학교의 리모델링 이후 다시 학교 운영의 여건 상 공간의 위치나 크기, 교과교실 수가 변경된 학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학교가 과연 교과교실제의 운영 취지나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와 그에 부합한 공간구성(교과교실의 수, 교실 이용율, 공용교실의 수, 공용교실의 크기와 위치 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과별 미디어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면적이나 위치, 내부 기기 등에 대한 충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교실제의 운영 및 공간구성에서 홈베이스는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 생활이 유지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단지 학생들의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홈(home)이고 베이스(base)의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전환시킬 시기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한 학교의 공간구성은 기존의 교과교실제의 공간구성으로도 대응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토와 방안이 수립된 후에 교과교실제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례 학교의 운영 방안과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진 고교학점제의 운영방안과 공간구성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신축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 측면의 쟁점 및 과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의 확대는 소인수반의 증대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작성 기준으로 13명 이하의 소인수반의 경우 석차등급을 통한 변별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과 연계된 과목의 수강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소인수 과목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학생선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확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정 학생 수 이상의 과목에 한정하여 개설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2017)가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⁴⁾을 보면,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한정하고, 수능 개편 1안과 2안 모두 출제범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을 배제하고 있다. 수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목이 수능의 출제범위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 하에, 수능에 과목이 반영되어야 학생들이


4)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2017. 8. 10.)'을 발표 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새 정부의 수능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적인 논의는 가능할 것임.

수업에 집중하고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수능에 과목이 반영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박경호 외, 2016).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이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진로선택과목을 선택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이 아닌 이상 학교 간 성취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학교 간 학생의 성취수준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학교 간 성취수준의 차이(또는 학력격차)는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의 현 체제에서도 상존하는 문제이다. 현 석차등급은 9등급 고정 비율로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는데 비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은 9등급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학생이 B등급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목표 중심의 준거참조평가에 따른 성취도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별도구로 활용하는데 주저하게 할 수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수능의 의존도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고,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축소된다면 논술 등과 같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마무리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체제로서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학점제의 선결요건 충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점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면 교육 주체의 인식 전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은 학점제를 통한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와 질을 담보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 선택권의 확대는 학생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대한 접근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생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학습의 결과와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잠자는 학생’의 문제는 교과목 선택권의 제약은 물론,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환경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교실수업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2017).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2017. 8. 10.)
-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2016. 12. 23.)
- 박경호·길혜지·김주아·박병영(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향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찬희·정광희·박경호·최수진·양희준·전계상·류호섭(2017).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찬희·강성국·이쌍철·김성미(2014).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훈·노경희·서순식·강성국·정영식·강민석(2012). 2012년도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광희·김주아·박승재·손찬희·이재덕·김진숙·임유원(2016). 다양한 진로수요 맞춤형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체제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희(2014). 단위제 교육과정 도입과 적응과정의 문제점. 교육종합연구, 12(4), 43-69.
- 황규호 외(2015).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교육부.
-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자유학기제의 새로운 도약

이상돈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자유학기제 추진 경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OECD DeSeCo)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해 왔으나, 암기와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학생들의 행복도와 흥미도는 여전히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되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부터 전면시행 되기까지 현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와 의미 있는 수업을 돌려주자는 자유학기의 취지에 대해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5년에는 당초 목표하였던 학교 수(전체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수의 학교(전체의 80%)에서 자유학기제를 조기 시행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1개 학기에 그치지 않고 자유학년제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현장의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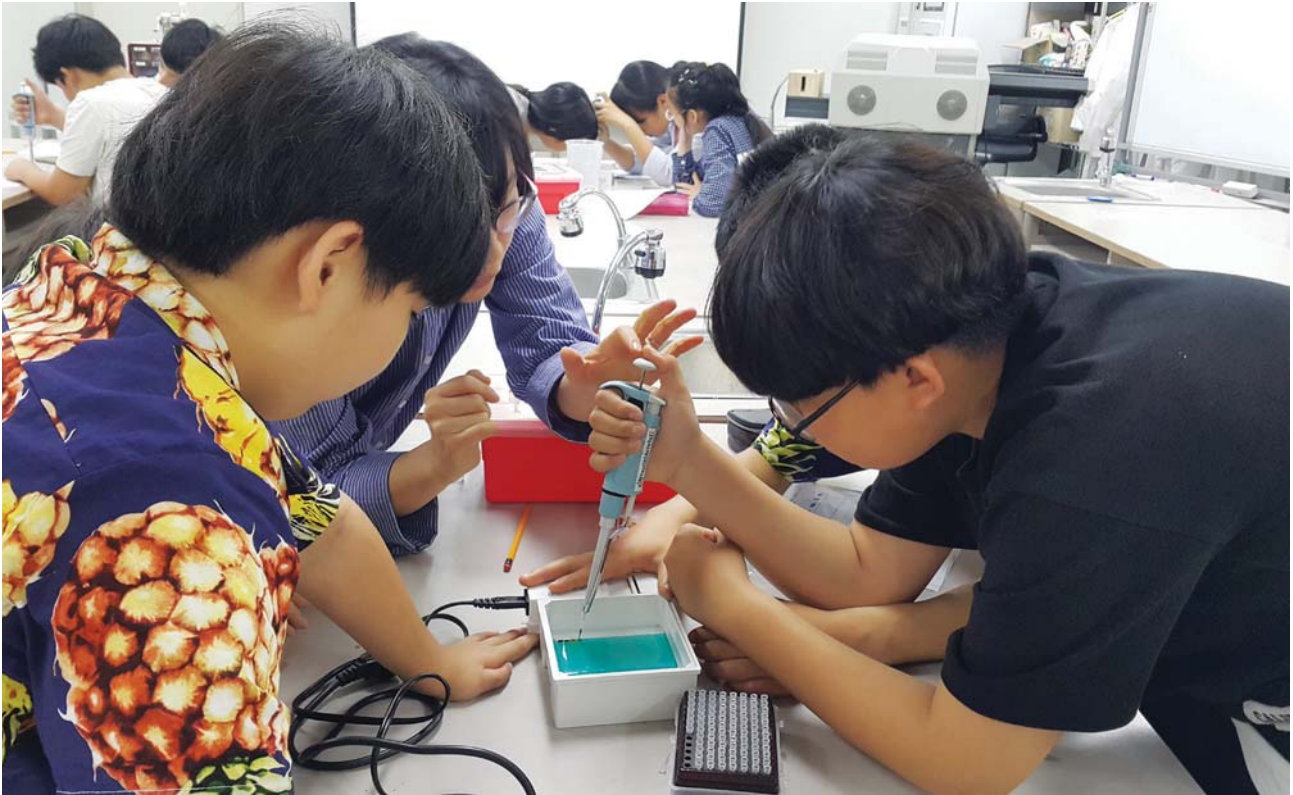
자유학기제의 지향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수업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시범운영 초기에는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강조되었으나,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거치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점차 진로탐색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강의식·지식전달식 수업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들이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단순 기능과 지식에 관한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총괄식·일제식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유학기의 핵심인 이러한 수업과 평가의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 교육내용과 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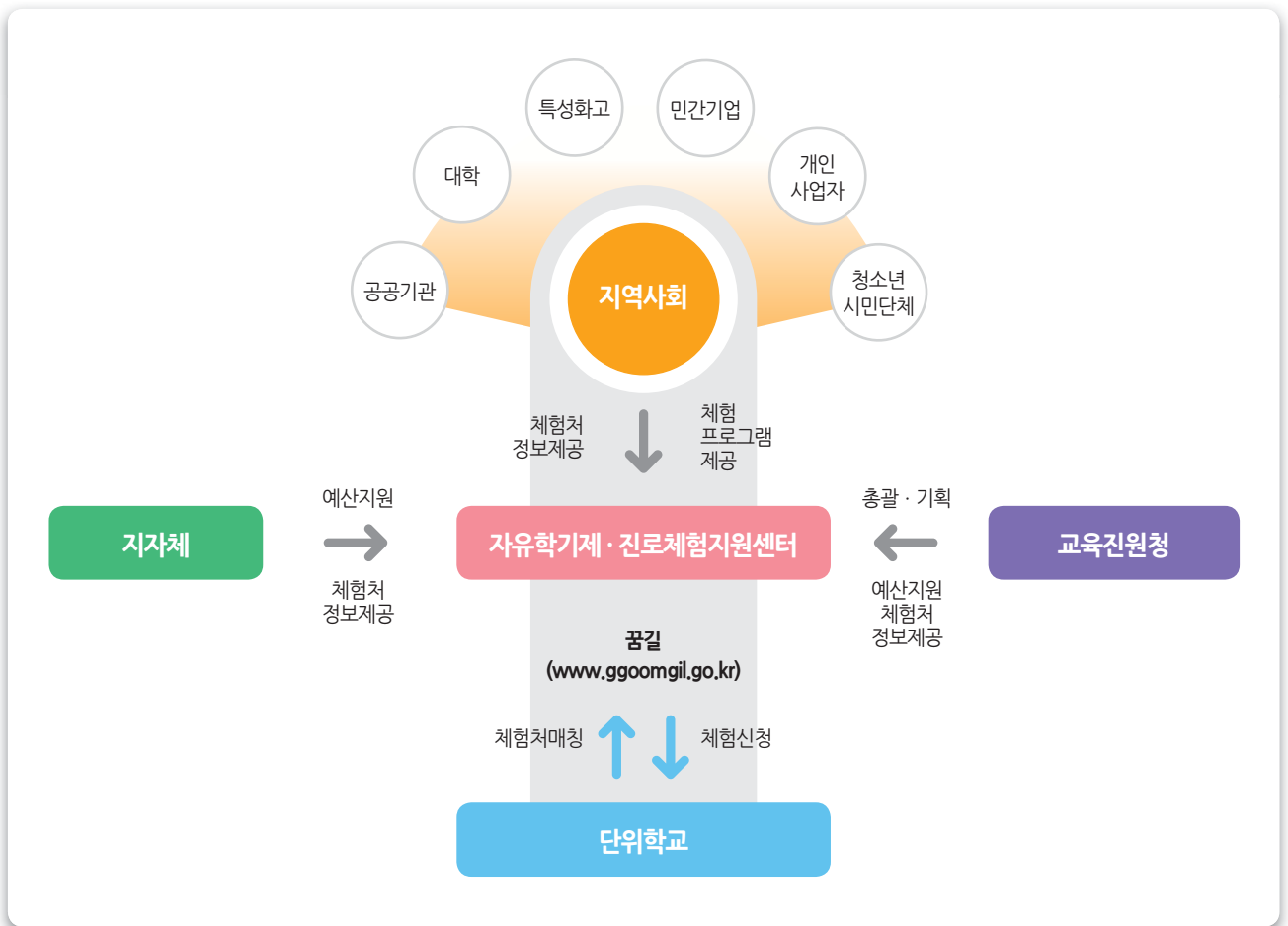


사진출처 :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국정철학과 자유학기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잠재력을 일으켜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유학기 동안만큼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유학기 활동 운영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능동적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모토는 또한 학교 교육에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자유학기제의 확대·발전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민간·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 내 체험자원들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희망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시행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부터 예외적인 하나의 학기만으로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학기에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수업 및 활동을 진행하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연계학기)’을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연계 학기나 탐색 학기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나름의 자유학년제가

확산되었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유학기 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자유학년제 형태로 운영하였다.

2018년부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으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정식 도입된다. 현장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을 개정하여,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두 학기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2개 학기 동안 기존의 자유학기과 같이 학생들의 교과 성취도를 P로 산출하고,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70개의 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운영 의사를 밝혔다(2017년 10월 수요조사 기준). 일찌감치 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하였던 경기·강원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전면시행 방침을 결정하였고, 광주교육청에서도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하였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및 기재
	학생중심 교육과정	참여와 활동 중심	과정 중심 평가
	교과		
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 · 교육과정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 ·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
	자유학기 활동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 진로탐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 · 학생의 참여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편성에 있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자유학년제의 적용학년은 현장의 선호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적응, 고입전형, 전·출입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라 현행 1개 학기 동안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던 것을 자유학년 운영 시에는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 기준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게 되면 1년에 걸쳐

자유학기 활동을 더욱 유동성 있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적용 학년과 연간 최소 자유학기 활동 시수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교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연계학기)도 2017년 현재 426개 학교에서 510여 개의 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계학기는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 직후 학기에 운영할 수 있고, 2개 학기 이상도 운영이 가능하다. 연계학기에는 4개의 자유학기 활동 중에서 2개 이상의 활동과 연계된 중점연계 활동이 운영된다.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현이 어렵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현장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 방문하여 수업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유학기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사례집·자료집, 학생용 안내서 개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약 700팀의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수업 개선에 필요한 교사 공동체의 연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개선 노력을 조력하면서, 노력의 결실이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매년 8월에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고민들과 성과들을 나누며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행사를 준비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의 일등공신이자 주인공으로서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며 학생들 한 명, 한명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전면시행 2년차를 맞으며 내년 자유학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대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자유학기 동안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지원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간에 이룬 성과만큼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절반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을 희망하고 나선만큼 교육부의 책임도 무겁다. 현장과 최대한 소통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하는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수업 2교사제가 ‘교실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이동엽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제시하였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7년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고, '18년에는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한 단위학교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1수업 2교사제가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초등 교사 임용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지목됨에 따라서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마치 실업률 해소 정책으로 오도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본질과 동떨어진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모호함과 경험적인 낯설음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전인수적인 시각으로 1수업 2교사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념적으로 ‘모호함’이 있는 이유는 1수업 2교사제가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용어가 아니라, 정책 구안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 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낯설음’이 느껴지는 것은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무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합의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 제도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1수업 2교사제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의 개념과 효과성, 다양한 모델 등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낯설음’이 초래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교실 혁명의 대안으로서 1수업 2교사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수업 2교사제란 무엇인가?

1수업 2교사제는 학술적으로는 ‘코티칭(co-teaching)’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코티칭이란 2명의 교사가 하나의 학급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교수-학습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교사들 또한 상호 협력을 매개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가능하다.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1수업 2교사제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cruggs, Mastropieri, McDuffie, 2007), 이러한 전문성 향상은 교사들의 동기나 직업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illa et al., 2008).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수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가능성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발견되었다(Roth et al., 2004). 김은영·신민경(2016)은 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건 마련이다. 협력교사들은 학업의욕이 부족하거나 학습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긍정적 동기화를 통해 학습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교사의 인식변화이다. 교사들은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다양한 협력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수업혁신을 위한 모색이다. 교사와 협력 교사는 상호 협력하여 최적의 수업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수업을 위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1수업 2교사제의 모델로는 <표 1>과 같이 특별지원 수업모델, 개별지원 수업모델, 일반지원 수업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이형빈·강에스터, 2015). 특별지원 수업모델과



일반지원 수업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한 학생 지도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지원 수업모델의 특징은 앞선 두 모델의 초점이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것에 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혁신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 보장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지원 수업 모델보다는 특별지원 수업모델, 개별지원 수업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1> 1수업 2교사제의 모델

유형	주요 내용
특별지원 수업모델	<p>대상: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예: 한글을 읽지 못함)</p> <p>방법: 담임교사의 진단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협력교사가 별도의 공간에서 대상 학생들을 지도</p>
개별지원 수업모델	<p>대상: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 (예: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이 부족,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p> <p>방법: 대상 학생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평소 교실 배치를 유지하면서, 담임교사가 수업을 이끄는 가운데 협력교사가 대상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지도</p>
일반지원 수업모델	<p>대상: 학생 일반</p> <p>방법: 담임교사가 협력교사와의 협력수업(co-teaching)을 통해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p>

1수업 2교사제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 문화적 측면 - 전통적인 교직문화의 충돌

1수업 2교사제는 전통적인 교직문화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교수-학습 활동)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수행은 비밀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교직문화는 ‘달걀판’에 비유되기도 하였다(Kyriakides, 2005; Lortie, 1972).

이러한 특수성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1수업 2교사제의 시행으로 1수업 안에 2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교직 문화와 상충되어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허주 외(2017)의 설문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역할 및 책임의 모호성, 운영 및 활용 방법 미숙, 협력을 위한 시간 부족, 협력교사 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교직 문화는 문화의 속성상 쉽게 변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1수업 2교사제는 도입과 확대, 제도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제도적 측면 - 협력교사의 신분과 자격

협력교사의 신분과 자격의 결정은 협력교사의 활용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에서의 협력교사는 시간제 강사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정규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위상을 가지며, 책임감 높은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협력교사의 안정된 신분 유지와 높은 자격 기준은 교실 현장에서 수업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시간제 강사의 신분과 최소한의 자격 조건으로는 협력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협력교사의 역할은 학습부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정도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협력교사의 안정된 신분 유지와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예산 소요를 감당해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허주 외(2017)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에 대한 1수업 2교사제 운영의 가상 시나리오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각 학교급에서는 약 1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협력교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규교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계약제 교원을 활용할 경우 학교급별로 무려 4,00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었다. 협력교사의 고용형태는 협력교사의 주요업무 및 책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수업 2교사제의 정책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인건비가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1수업 2교사제가 초래하는 인건비의 추가적 부담은 재정 확보 및 분배 논의에서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표 2> 1수업 2교사제 가상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대상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수	430,914명	430,914명	470,885명	470,885명
학급수	18,626학급	18,626학급	16,754학급	16,754학급
학교수	6,001교	6,001교	3,209교	3,209교
대상과목	수학	수학	수학	수학
협력교사	계약제 교원	시간제 강사	계약제 교원	시간제 강사
급여형태	연봉제	시간제	연봉제	시간제
협력교사 필요인원 (교원수 전체)	약 9,817명 (183,452명)	약 9,817명 (183,452명)	약 8,605명 (109,525명)	약 8,605명 (109,525명)
연간 소요예산	약 4,983억원	약 401억원	약 4,367억원	약 351억원

※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 2016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1수업 2교사제가 '교실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는 학교의 유형과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즉 수업에 대한 변화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10년 동안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교무업무보조인력 배치', '전문상담교사 증원',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복수담임제'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학교와 수업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업무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들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로서 교실 안에서의 수업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정바을

외, 2013; 박영숙 외, 2015). 더욱이 2014년에 발표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은 34개 참여국 중 교수-학습 관련 자기 효능감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허주 외, 2015).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수업 2교사제는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인 교수-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이며, 교육에 대한 사회의 변화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 보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혁명(revolution)’의 사전적 의미는 ‘종래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에 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교실 혁명’이란 결국 학교의 핵심 기술인 교수-학습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교수-학습 과정 가운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학습 내용이나 반복, 연습 활동 등은 테크놀로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과감히 위임하고, 자신들은 학생들이 비판적 능력, 창의력, 정서적 능력, 개척자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Fullan & Langworthy, 2014). 이러한 측면에서 1수업 2교사제가 단순히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실 혁명’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사회적 합의의 진통은 따르겠지만, 1수업 2교사제를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위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교실 혁명’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은 1수업 2교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몸소 감내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1수업 2교사제 하에서 협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 장차 교사로 성장하게 된다면,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교사들에게 1수업 2교사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이 ‘낯설음’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느껴졌을 때, ‘교실 혁명’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온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영, 신민경(2016). 초등 협력교사제 운영 모델 발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박영숙, 박균열, 정광희, 김갑성, 견제상, 양설희(2015). 교직원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 :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이형빈, 강에스더(2015). 기초학습 보장을 위한 초등 협력교사제 수업모델 개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정바울, 김갑성, 이영, 김철중, 이현석(2013).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허주, 이동엽, 김혜자, 김갑성, 차성현, 김순남(2017). 1수업 2교사 모델 개발 연구-초등학교-중학교 사례 중심. 한국교육개발원.
- 허주, 최수진, 김이경, 김갑성, 김용련, 김서현(2015). 교원 및 교직원경 국제비교 연구 :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Fullan, M., & Langworthy, M. (2014). A rich seam: How new pedagogies find deep learning. London : Pearson.
- Kyriakides, L., (2005). Evaluating school policy on parents working with their children in cla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8(5), 281-298.
- Lortie, D. C. (1972). Team Teaching. Versuch der Beschreibung einer zukünftigen Schule. Team Teaching in der Schule, 37-76.
- Roth W.-M., Tobin, K., Carambo, C., & Dalland, C. (2004). Coteaching: Creating resources for learning and learning to teach chemistry in urban high 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1(9), 882-904.
- Scruggs, T. E., Mastropieri, M. A., & McDuffie, K. A. (2007). Co-teaching in inclusive classrooms: 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Exceptional Children, 73(4), 392-416.
- Villa, R. A., Thousand, J. S., & Nevin, A. I. (2008). A guide to coteaching: Practical tips for facilitating student learning (2nd ed.). Thousand Oaks, CA:Corwin.



일본의 방학기간 체험활동을 위한 공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김지영 · 동경대학교 박사과정수로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도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체험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의 확보 등으로 인해 주말과 방학시간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학생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원의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학교와 지역이 연계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계협력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일방적 '지원'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연계협력' 관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

체험활동의 효과와 현황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자립심, 주체성, 협동성, 도전정신, 책임감,

창조력, 변화에 대응하는 힘 등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절이나 배려와 같은 규범의식과 도덕심 등도 높아진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놀거나 관찰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과학교목에서 평균정답률이 높게 나왔으며, 자연에서 집단숙박활동을 긴 일수 동안 실시한 초등학교가 국어, 산수의 활용문제에서 평균정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체험활동이 학력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이 자란 학생들은 일에 대해 먹고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체험활동은 이러한 학생이 건전한 직업관, 노동관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길러준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부등교, 은둔형 외톨이 등의 청소년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며, 이지메 문제도 집단활동을 통해 규범의식과 인성, 인간관계형성 능력 등을 길러 대응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있는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익한 체험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학교의 체험활동 실시시간 수(단위시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년	30.7	25.8	22.4
2002년	46	32	34.5
2004년	39.3	30	40.7
2006년	41	35.9	39.2
2008년	36.9	35.3	57.3
2010년	31.4	35.4	47.3

출처:문부과학성 조사, 내각부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백서 재인용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6honpen/b1_03_02.html

- 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이 1년간 실시하는 체험활동의 총단위시간 평균(45분 1단위시간)
- 중학교, 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이 1년간 실시하는 체험활동의 총단위시간 평균(50분 1단위시간)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자연체험활동에 초등학생이 참여한 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저하되었으며, 전국에 700곳 이상이던 국공립 청소년교육시설 수도 2005년 이후 급감하여 2011년에는 471 곳이 되었다.

이처럼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기관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연간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특히 장기집단숙박활동이나 직장체험활동 등의 학교행사는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는 효고현의 체험활동주간 ‘토리아야루 워크’도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표 2> 학교 이외의 단체 등이 실시하는 자연체험 활동 참가율

구분	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6
2006년	57.5	59.1	62.5	65.9	69.9	64.3
2007년	55.8	55.8	61.7	63.1	66.7	62.4
2008년	59.3	62.1	64.6	64.1	66.1	63.6
2009년	50.2	52.2	53.6	58.4	59.6	53.7
2010년	48.2	50	53.1	53.2	55.2	50.1
2012년	48.8	47.7	50.8	53.3	55.7	49.7

출처: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2014)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2012년도 조사), 내각부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백서 재인용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6honpen/b1_03_02.html



체험활동을 위한 공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있는 체험활동이기에, 일본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전 교과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활동의 기획과 지도인력, 장소섭외 등에 있어서 지역과 연계협력하는 부분이 많아졌는데, 지역학교협동본부를 설치하여 이러한 연계협력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지역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스쿨을 지향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스쿨의 확대방안의 하나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4,527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역학교협동본부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학교협동본부에는 지역 코디네이터가 있어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역학교협동활동의 기획과 입안을 하고, 학교나 지역의 관계자간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며, 지역주민 가운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지역 코디네이터간의 정보공유와 연락조정을 담당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두어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학교에는 학교측 상담창구가 되는 지역연계담당 교직원을 두어 지역 코디네이터와 연계협력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교과활동의 지원이나 방과후 지원 이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력의 중요한 분야가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활동장소나 내용에 따라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비율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과 섭외, 지도 등의 부담은 교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며 비효율적이므로 지역 코디네이터를 두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효고현의 토라이아루 위크는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체험활동주간으로, 운영을 위해 교구추진위원회를 두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사례: 토라이아루 위크(효고현)

효고현의 토라이아루 위크는 1998년도에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실시하고 있는 체험활동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연속 5일간 지역에서 직장체험, 복지체험, 노동생산활동

<표 3> 2016년 활동시기(복수응답)

실시 시기	실시 학교수(특별지원학교수)	비율(%)
주말을 이용한 실시	189(6)	87.9
여름방학 중에 실시	137(1)	63.7
겨울방학 중에 실시	15(0)	7.0
봄 방학 중에 실시	2(0)	0.9

출처: 효고현 교육위원회(2017.3) 2016년도 지역에서 배우는 '토라이아루 위크' 보고서 p.8의 표 일부 인용
<http://www.hyogo-c.ed.jp/~gimu-bo/tryaru/29/H28matome.pdf>

<표4> 2016년 참가학교수, 학생수, 활동장소수, 지도 자원봉사수

연도	실시 학교수	2학년		그룹수	활동장소 수	지도 자원봉사수
		학급수	학생수			
2016년	359	1,443	46,518	17,365	17,383	22,906

출처: 효고현 교육위원회(2017.3) 2016년도 지역에서 배우는 '토라이아루 위크' 보고서 p.3의 표 일부 인용
<http://www.hyogo-c.ed.jp/~gimu-bo/tryaru/29/H28matome.pdf>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인성을 기르고, 지역 커뮤니티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토라이야루 위크의 추진체제인 교구추진위원회는 학교관계자, PTA,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기획과 협의, 지도 등을 맡아 학교와 연계하고 있다. 토라이야루 위크는 주로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시기별 실시학교수는 다음과 같다.

그룹편성은 한 그룹당 평균 2.7 명이며, 활동장소는 한 곳당 평균 2.7 명, 지도 볼런티어는 평균 학생 2.0 명당 한 명이다.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직장체험활동 82.8%, 자원봉사나 복지체험활동 8.9%, 문화예술창작 체험활동 3.9%, 농림수산 체험활동 2.3%, 그 외 (국제이해, 과학기술, 환경, 정보 등) 2.1%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로는 유아교육 20.9%, 판매 17.9%, 사회복지시설 8.0%, 공공기관이나 소방서 등 7.8%, 음식점 등 6.9%,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6.1%, 제조나 건축 4.5%, 병원 등 4.0%, 문화예술창작 체험활동 3.9%, 스포츠 체육시설 등 3.5%이다. 지역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수력발전소의 운전과 보수, 지진피해기념공원 아나운스, 공항에서 여객업무수속 체험, 구조견 돌보기,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역특산물 수확이나 제조, 지역의 기업과 병원에서의 체험활동, 지역의 역사유적 답사 등이 있다. 평균 11.4 시간 실시하는 학교의 사전지도에는 취지 및 활동설명회를 비롯하여 희망조사, 활동수용기관 방문, 매너지도, 활동수용기관 소개, 명함작성, 출발식, 자원봉사자와 회의, 타학년이나 타지역에 대한 계발활동, 복지학습 등이 포함된다. 사후지도에는 평균 7.9 시간을 할애하며 감사편지 작성, 감상문 작성, 실천발표회, 홍보활동, 교류회, 발전학습(정보학습, 복지건강학습, 인권학습, 방재학습, 환경학습, 평화학습, 토라이야루 액션, 국제이해학습)을 한다. 특히 지역연계추진활동인 토라이야루 액션을 실시한 학교는 215 교(59.9%)이며, 지역축제의 기획과 운영, 청소활동이나 자원봉사, 토라이야루 위크의 지속적인 활동 등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토라이야루 위크’의 추진체제인 ‘교구추진 위원회’는 모든 공립중학교, 현립중등교육학교, 시립특별 지원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원과 역할 등은 다음과 같다.

<표 5> 교구추진위원회 참가자 수 및 내역(평균인원수)

학교관계	PTA관계	지역단체대표 등	합계
6.0 명	6.6 명	6.5 명	19.1 명

출처:효고현 교육위원회(2017.3) 2016년도 지역에서 배우는 ‘토라이야루 위크’ 보고서 p.14의 표에서 인용
<http://www.hyogo-c.ed.jp/~gimu-bo/tryyaru/29/H28matome.pdf>

이 중 지역단체대표 등의 구성원은 자치회 대표, 사업소 대표, 청소년육성단체 대표, 노인회나 부인회 대표, 교육위원회 초등학교 교장, 복지단체, 공민관장,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구추진위원회가 실시하는 활동 사례

- 학부모, 지역에 대한 협력의회 (79.8%)
- 활동수용기관 개척 (70.8%)
- 활동수용기관 검토 (59.6%)
- 순회방문 (53.2%)
- 학생의 활동에 대한 검토 (45.6%)
- 사전, 사후지도의 지원 (44.4%)
- 설문조사, 정리 (26.3%)
- 취재 (17.0%)


시사점

학생의 체험활동을 위한 일본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학교지원본부에 배치하는 지역 코디네이터나 효고현 토라이야루 위크의 교구추진위원회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기간처럼 학교의 휴업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체험활동일 경우 교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 있는 코디네이터 인력의 양성, 연수, 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운용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2018년도부터 키즈워크를 도입한다. 키즈워크란 지역별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과 같은 학교의 장기휴업일 중에서 일부 기간을 다른 기간으로 옮겨 전후의 주말과 합쳐서 만든 9일간의 연휴를 일컫는 말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키즈워크의 도입배경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유급휴가 취득률을 70%까지 향상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는 키즈워크의 기간에 해당 지역의 기업의 고용주는 자녀가 있는 직원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학교는 키즈워크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학사일정의 조정 등을 해야한다. 경제적 측면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나, 자녀가 없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공평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도입이 결정되고, 올해 9월에는 학교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학교휴업일을 적절하게 분산화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키즈워크는 그동안 체험장소의 제공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주로 지역이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연계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학교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협의하여 키즈워크의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던 기존의 연계와는 달리, 학교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학사일정과 교육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은 학교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만큼 좋은 의미에서나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나 학교가 지역사회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2015년 12월에 중앙교육심의회가 답신한 내용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커뮤니티 스쿨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협동체제가 ‘지원’에서 ‘연계협동’으로, ‘개별활동’에서 ‘종합화, 네트워크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지역의 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서, 학생의 심신의 발달과 지역전체의 교육력 향상, 지역활성화라는 시점에서 학교와 지역이 파트너로서 상호간에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는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내각부(2014)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백서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6honpen/b1_03_02.html

효고현 교육위원회(2017.3) 2016년도 지역에서 배우는 ‘토라이야루 워크’ 보고서
<http://www.hyogo-c.ed.jp/~gimu-bo/tryaru/29/H28matome.pdf>

효고현 교육위원회(2008.3) 지역에서 배우는 ‘토라이야루 워크’ 보고서-10년 평가검증 보고서-
<http://www.hyogo-c.ed.jp/~gimu-bo/tryaru/tryaru.pdf>

내각부(2017)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휴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키즈워크’ 종합추진회의 제1회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kidsweek/dai1/siryou.pdf>

일본경제신문(2017.7.23) 문제가 많은 키즈워크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19150230S7A720C1EA1000/>

문부과학성(2013) 앞으로의 청소년 체험활동 추진에 대해(중앙교육심의회 2013.01.21 답신)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3/04/03/1330231_01.pdf

문부과학성(2017) 학교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_icsFiles/afieldfile/2017/09/28/1396748_001_1.pdf

문부과학성(2015)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지방창생의 실현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동과 향후의 추진방책(중앙교육심의회 2015.12.21 답신)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_icsFiles/afieldfile/2016/01/05/1365791_1.pdf



프랑스의 방학정책

김현경 · 프랑스 몽펠리에대학교 석사과정



프랑스의 방학기간

프랑스 교육기관의 학년도는 9월에 시작하고 7월에 끝난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학년도는 2017-2018학년도이다.

방학 기간은 학교별 자율 설정이 아니라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구역(도시)에 따라 설정되며, 총 30개의 교육구역이 A, B, C 세 개의 존¹⁾으로 나뉘어 같은 학사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2017-2018학년도의 방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A존	B존	C존
개학	2017년 9월 4일(월)		
만성절방학	2017년 10월 21일(토) ~ 2017년 11월 5일(일)		
성탄절방학	2017년 12월 23일(토) ~ 2018년 1월 7일(일)		
겨울방학	2018년 2월 10일(토) ~ 2018년 2월 25일(일)	2018년 2월 24일(토) ~ 2018년 3월 11일(일)	2018년 2월 17일(토) ~ 2018년 3월 4일(일)
봄방학	2018년 4월 7일(토) ~ 2018년 4월 22일(일)	2018년 4월 25일(수) ~ 2018년 5월 13일(일)	2018년 4월 14일(토) ~ 2018년 4월 29일(일)
학년말 방학	2018년 7월 7일(토) ~ 2018년 9월 2일(일)		

프랑스의 방학정책

방학기간동안 공공차원(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학정책은 열린학교사업이 있으며, 2017년부터 성공캠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열린학교 (Ecole ouverte)

199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휴가를 떠나지 않거나 지역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 및 수요일과 토요일(수업이 없는 요일)에 중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교육우선지역²⁾이나 도시의 교육취약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의 요청에 의해 참가신청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1) 자원 및 보수의 원칙 : 열린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장, 교사, 지원인력의 자발적 신청과 참여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은 보수로 지급된다.
- 2) 학교장 책임 및 기관 자율성의 원칙 : 열린학교의 프로그램 계획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관리팀(GPR)이 운영 내용이 열린학교 정책의 목적에 합당한지 확인하게 된다.

1) 그림 1 참조

2) Zone d'education prioritaire(ZEP) :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적, 교육학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성취에 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 주로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거나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2016년부터 REP정책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대상

중등학교 교육기관의 학생, 학교밖 청소년, 초등학생(특히 CM2³ 학생).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취학연령 미만 혹은 초과의 지원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수용 가능한 학생의 수를 정하고, 진행 인력, 활동, 집행예산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목적

- 교육기관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개방 : 학교기관에서 구성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하고 사회화되고, 시민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기관을 지역사회에 개방 : 열린학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학교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활용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사회의 구성원 및 단체와 협력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 교육기관 간의 협력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삶, 방학”이라는 지역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간

지방자치단체 관리팀(GPR)에서 기간을 결정하며 1년에 최소 2번(1번은 필수적으로 학년말 여름방학)에 걸쳐 이루어진다. 여름방학에는 최소 3주(2기간으로 나뉘)로 운영된다.

학기 중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기간은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최소 기간에 맞추어 운영된다.

활동

열린학교의 운영내용은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합당한 선에서 교육기관의 자원에 맡긴다. 열린학교 기간 동안에는 보충활동, 학습활동,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된다. 또한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가지의 활동만 포함하는 계획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Lille교육청 소속 학교의 활동 예시

- 정원 가꾸기(문화활동) :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재미있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식재료를 직접 가꾸며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 환기
- 3D 칠교놀이 제작(학습활동) :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칠교놀이를 3D로 구현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지각과 기하학 원리 습득
- 스포츠 만남(스포츠활동) : 철인 3종경기, 유도, 암벽등반 등의 활동에 여러 학교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여 참여함으로써 ‘함께 살기의 가치 습득

3) 프랑스 초등학교 학령기간은 5년이며, CP, CE1, CE2, CM1, CM2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CM2는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며, 이후에는 중학교(4년-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로 진학하게 된다.

협력 및 조정

열린학교의 운영은 여러 정부부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교육부, 청년부, 사회·노동·복지부, 보건·가족·장애부 등).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과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장과 지역의 여러 기관(DRAC-지역문화관할기관, DDASS-지역보건사회기관, DRJS-지역청년및스포츠기관 등)이 협력하여 내용을 꾸리게 된다.

책임과 관리

교육기관의 장은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에서 열린 학교 프로그램, 내용, 운영과 진행을 총 책임진다. 교육기관의 장은 참여청소년, 운영인력, 설비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열린학교의 운영인력(팀)은 대다수가 현직 교사이며, 외부 인력⁴⁾도 포함할 수 있다.

감독기관

1) 열린학교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Ecole ouverte(CN)

자문기관으로 내무부 및 여러 정부부처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학교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구조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의 감독을 관할한다.

2) 지방자치단체 관리팀

Groupe de pilotage régional(GPR)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와 열린학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기획, 운영을 책임진다.

3) 교육청 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의 행정부서를 구성하며, 학교장이 구성한 열린학교 프로그램의 1차 감독을 담당하고, 행정적 교육적 지원을 한다.

재정

열린학교의 재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충당된다.

- 정부부처(사회·노동·복지부, 보건·가족·장애부, 교육부)의 교부금 신청을 신청한다.
- 학교 자체의 재정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정지원기관을 구한다.

열린학교 프로그램의 평가

- 질적·양적 평가 : 1차적으로 학교장은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활동 보고서(운영 과정, 효과, 개선점 등)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관할 지역의 활동보고서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 재정 평가(감사) : 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열린학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쓰인 예산의 결산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학교 내 행정위원회에 재정 사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2011년 열린학교 운영의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다.

- 대상 : Cycle제도⁵⁾의 도입에 따라 cycle 3에 해당하는 CM1, CM2, 6학년(중학교 1학년에 해당)간의 연관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CM2 학생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학생들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4) 교육부의 정식, 계약직 공무원, 다른 부처의 공무원,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다양한 분야 종사자 등) 등이 학교장의 판단 하에 운영팀에 합류할 수 있다.

5) 기본소양교육기간(초등학교와 중학교)을 3개 학년으로 묶는 것으로, cycle별로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 열린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 운영인력 : 학부모가 열린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 기간 : 여름방학기간동안 최소 2주와, 이외 방학기간에 최소 1주의 운영기간을 갖는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 교육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관리팀(GPR)의 역할 : 각 학교가 지원한 열린학교의 운영계획을 검토 및 선정하며, 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7년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린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새롭게 요구하였다.

- 내용 : 2016년에 도입된 중학교 개혁과 Cycle상의 교육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 활동 : 미디어 및 정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활동을 편성한다.
- 시민사회와 결합 : 시민성저장고⁶⁾를 활용한다.
- 운영 인력 : 학부모가 활동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직접 활동을 구상하고 운영하도록 격려한다.
- 열린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장들간의 회의가 교육청 별로 1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른 열린학교 현황 (2014-2015년도 운영)

- 중등학교의 617개교가 참여했으며, 그 중 중학교의 92% 참여함.
- 참여교 중 60%가 교육우선지역이나 교육취약지역의 학교
- 총 7886명의 인력이 참여, 그 중 39.3%가 교사
- 총합 2015주 동안 운영되었으며, 그 중 38%는 여름방학 기간에, 49%는 여름방학을 제외한 짧은 방학기간에, 13%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됨
- 총 840만유로의 정부 예산과 71만9천유로의 지방 자치예산 투입

프랑스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열린학교 정책의 효과

- 전반적인 학교 내 분위기가 향상됨(더 편안하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음)
- 주변 환경과 교육기관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마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청소년과 교육인력(특히 교사), 학교와 학부모간의 관계가 향상됨
- 청소년의 행동이 학교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됨(불량행동 감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감소 등)
- 초등학생의 사회, 교육적 통합



6) Réserve citoyenne : 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학교 외부의 다양한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구축한 인적자원 플랫폼(인력풀)

성공캠프 (Stage de réussite)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된 ‘신뢰의 학교 (Ecole de la confiance)’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대상: 초등학교 5학년 학생(CM2)

목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와 학업성취를 보장

기간: 봄방학의 첫 주 및 중학교로 진학하기 전 여름방학 첫 주(7월 첫째 주) 또는 마지막 주(8월 마지막 주)

내용: 성공캠프는 매일 3시간 씩 5일에 걸쳐 진행되며, 프랑스어와 수학과목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자원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에 의해 운영되며,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공캠프는 보통 초등학교에서 운영되지만,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학습보조⁷⁾와는 별개로 CM2학년의 학생들은 이후 중학교에서 접하게 될 학습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캠프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당 학생의 단일화된 생활기록부(CP부터 중학교 마지막 학년까지)를 참조하여 학생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공캠프 기간 동안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해당 학년도에 이루어진 교육내용과 일관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 A, B, C준 구역도



출처 : 프랑스 교육부 방학 홈페이지(<http://vacances-scolaires.education/carte-2016.php>)

참고문헌

Charte Ecole ouverte, Circulaire n°2003-008 du 23 janvier 2003(열린학교 헌장, 2003년 1월 23일 공문)

Opération école ouverte pour l'année 2011 - appel à projets, Circulaire n° 2011-011 du 19 janvier 2011(2011학년도 열린학교 운영 - 계획 요청, 2011년 1월 19일 공문)

Opération école ouverte pour l'année 2017 - appel à projets, Circulaire n° 2017-034 du 1 mars 2017(2017학년도 열린학교 운영 - 계획 요청, 2017년 3월 1일 공문)

Ecole ouverte bilan 2014, Ministère de l'Éduca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2014년도 열린학교 결산, 교육·고등교육 연구부)

Lille 교육청 '열린학교'페이지

http://www1.ac-lille.fr/cid97560/ecole-ouverte.html#Exemples_de_projets_developpes_dans_l_Academie_pour_l_Ecole_Ouverte_2015

7) Soutien scolaire :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적 도움으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네 가지 1) 학습내용 보충 및 숙제 도움 2) 예술문화활동 3) 체육활동 4) 외국어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학 체험활동

김은빈 · 부산대학교 미래교육전문기봉사단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를 대비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들과 저소득층 가정 및 소외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지만 학생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경험하려고 해도 물리적 환경과 인구학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교육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나눔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김정섭 교수는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전문가봉사단을 2014년 창단하였다. 미래교육전문가봉사단은 미래교육 발전과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만나면서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학생을 위한 일들 중 하나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대학원생으로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13년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김정섭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후원금을 모아 화개중학교에서 '제1회 학습나눔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무료하기 쉬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체험위주로 진행된 교육은 날이 거듭될수록 인기를 끌었다.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학습전략을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란

입소문을 통해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당초 희망학생보다 참여하는 교육생이 점차 늘어났다.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봉사단은 다음의 봉사활동을 계획하였다.

교육전문가로서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봉사단 혼자 힘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봉사단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찾던 중 뜻을 함께 할 기업과 공공기관을 만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산간벽지에서 교육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며 삼성SDI 울산사업장과 MOU 체결을 맺었다. 부산광역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MOU 체결을 맺었다.

봉사단은 청소년인재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산관학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본 고에서는 2015년 거문도 봉사활동과 2017년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 봉사활동을 소개한다.

하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섬 '거문도'는 봉사활동 일정을 잡는 것부터 어려웠다.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지만 날씨가 좋아야지만 배가 뜰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은 메르스와 태풍의 여파로 몇 번이나 일정이 연기되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재능기부 자원봉사원정대'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들에게 '학습컨설팅'을 가르쳐주고자 부산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여수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2시간 반 배를 타고 들어가자 피곤함과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아침 일찍 출발했으나 거문도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오후였고 봉사단은 부랴부랴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다음날 아침 '놀고 싶은 방학인데..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긴장되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섰다. 우리의 기우와는 달리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수줍음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맞아 주는 것을 보며 이번 활동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 시간은 언제나 즐겁다. 자신의 꿈을 '되기 · 하기 · 갖기 · 돕기'로 나누어보며 학생들의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보았다. 막연하게 꿈꿔왔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미래모습을 키워나갔다. 장기적인 목표를 단기목표로 세분화하면서 자신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방법도 찾았다. 시간관리 전략을 세우고 자신만의 시간 활용법도 만들어 보았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해보고 친구들에게 격려도 받았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수업 장면에서 참여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오덕자 교수님을 섭외하여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전략으로 한글과 댄스를 접목해서 소개하였다. 학습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학습전략도 얼마든지 즐겁게 익힐 수 있는 것임을 몸소 체험해 보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웃음소리 때문인지 오전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에 학습컨설팅 소문이 퍼졌다. 발 빠른 병설유치원 선생님께서 봉사단에 뛰어 오시어 유치원생에게도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당황했지만 봉사활동의 취지를 생각하며 준비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과 집중력에 놀라면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며 함께 협력하고 적응해 나가는 모습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 받았다.

프로그램이 한창이던 오후 수업시간에 먼저 하교해야 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학교와 집이 먼 학생들은 택시를 타거나 배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과 봉사단원 모두 아쉬운 눈빛으로 헤어져야 할 때 이곳의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과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니 조용하게 물들어가는 노을과 거문도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였다.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거문도 지역주민들과 삼성SDI 울산사업장, 미리내교육전문가봉사단이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열정적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보면서 일회성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다음해 2017년 여름방학에는 거문도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를 탐방하고 영주를 방문하여 소수중학교 학생들과 소수서원에서 문화체험활동도 함께 체험하였다.

봉사활동은 교육전문가로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전달하는 일이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았다. 지역주민의 환영과 학생들의 집중하는 눈빛과 에너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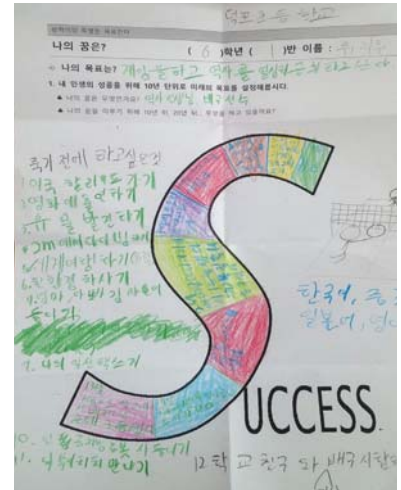
소외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가까운 부산지역의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활동 방법을 찾던 중 2016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활동을 계획하였다. 학기 중 보다 방학 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을 배우고 진로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16년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포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천 Learning Man! 더하고 나누는 학습프로젝트'를 이틀 동안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는 교육기부금과 직업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은 북구와 사상구 46개 초등학교와 2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20명을 모집하였다. 미리내 교육전문가봉사단은 160여명의 봉사단원들 중에서 초등학교 수석교사와 중등교사, 학습컨설턴트 등 20여 명이 참여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학습컨설팅을 배우고 삼량 진양수발전소를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와 한국전력 공사의 송·변전 설비를 둘러보는 진로체험활동에 참





여했다. ‘반짝이는 내안의 보석 찾기’ 학습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생각해보고 10년 단위로 자기만의 미래를 Success곡선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학습을 위한 집중력과 기억력 전략도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 관리와 책임기 전략도 익혔다. 학생들은 책임기 전략을 통해 독서를 하는 나만의 이유와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책을 효과적으로 정독하는 연습과 책의 내용을 학습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직접 활동해 보면서 학습컨설팅을 경험했다. 봉사단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꿈과 동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학생들에게 ‘머긴스(Muggins)게임’을 통해 수학이라는 과목도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았다. 학생들은 동기들과 함께 주사위를 던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숫자를 혼합하고 연산과 응용을 통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학생들의 자신감이 점점 상승하였고, 특히 조별활동 시간에는 어느 때 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생각지도 못한 연산 식을 만들어 우리를 더 놀라게 했다.

참가자 학생 중 한명은 “원래 수학을 싫어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활동으로 배우니 수학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고, 발표도 하다 보니 나의 말솜씨도 많이 는 것 같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준비했던 시간은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자신의 성장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뿌듯함과 가슴 뭉클함으로 나 자신이 한 뼉 더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팀과 함께 삼랑진 양수발전소로 출발했다.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 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이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신재생에너지와 양수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부 저수지까지 올라가보면서 학생들은 한국전력공사의 다양한 역할과 직업들에 대해 알아갔다. 이러한 시간은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봉사활동의 마무리는 항상 ‘행복박수’를 치는 것이다. 행복박수는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는 문장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치며 박수를 치는 것이다. 행복박수를 치는 것은 삶의 주인공은 학생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자신만의 학습과 삶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학교에서 모여 서로 어색해하고 지루한 공부를 또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반짝이는 눈빛과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힘차게 행복을 외쳤다.

방학을 이용한 학습컨설팅 활동이 지속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북부교육지원청과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는 2017년 2학기에도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로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본다. 교육은 지식을 채

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교육봉사는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필자는 2013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변화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고 미미할 수 있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들을 돌보고 학습전략을 가르쳐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문화체험이나 진로 활동을 할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필자는 교육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소중한 나를 위한 4HD 행복 충전 여름 방학

이종희 · 신어초등학교 교사



오지랖 넓은 선생님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 키울거 아니면 오지랖 떨지 말라고 엄마가 말 그대로 전해 달래요. 근데 오지랖이 뭐예요?”

얼마 전 유아기부터 오랜 기간 아동학대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1학년 한 아이의 입으로 복지 담당 교사에게 부모가 전한 얘기에 말문이 막혀 버렸다.

1학년이지만 4~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작은 체구이지만 점심시간이면 성인보다 많이 먹으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을 걱정시킨다. 선생님의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여러 선생님들이 귀가를 독려하고 집까지 동행해주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여러 행동이 부모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 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바쁜 요즈음의 세태 속에서 교육과 보육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공교육의 아픔을 내 마음 속에 접어 넣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특히 학교의 최소한의 보호와 양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방학 기간 방치된 아이들,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에 신어초등학교(교장 조경련)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복지 프로그램(4개 영역)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신어초등학교 연간 교육복지 프로그램

학습·문화	맞춤형 지원	관계증진	지역사회연계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공부 • 가야왕도 김해 우리고장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학교생활! • 건강한 나의 몸 • 클래스 엔젤 • 가정방문 • 긴급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벽화그리기 (멘토링) • 3GO 뜨개공방 • 원예체험활동 (벼재배) • 꿈이 자라는 방학교실 • 꿈 열매 관악 • 합창부 • 1:1심리상담, 놀이, 미술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찬학교생활 • 마음키움, 꿈키움 • 지역사회연계 활동 •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문화체험 • 삼방시장 반찬지원 • 아침머고 조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해요! 신어교육복지! • 꿈나래터 교육복지실 운영

4HD로 행복한 방학 보내기

우리 학교는 전교생 500여명의 약 절반 가량이 교육 복지 대상자이다.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고, 입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 기간 중에는 결식 아동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복지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결식 해결(Health)은 물론 냉방 장치도 없이 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즐겁고 보람된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표 2> 신어초등학교 여름방학 4HD교육복지 프로그램

구분	건강지킴이 (Health)	마음지킴이 (Healing)	생각지킴이 (Happy)	또래지킴이 (Harmony)	미래지킴이 (Dream)
프로그램	중식지도	집단 활동	가족활동지원	협동체험활동	“우리가 꿈꾸는 미래”
	건강지도				



식사 전 감정 카드로 나 표현하기



뷔페식으로 건강한 먹거리 식사

관계의 회복 (Healing & Harmony)

가정의 환경이 좋지 못한 초등학생은 대체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배려심이 적고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해서 다툼이 잦다.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의 무관심과 사회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의 심리적인 치료와 행동의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2차, 3차 폭력 피해가 일어나곤 한다. 사람의 인성과 습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예절부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까지 꾸준한 지도가 필요한 일들을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 중 가베 놀이를 통해 학습 습관의 형성 및 집중력 강화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는 감상 활동을 통하여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블록 놀이와 펠러비즈, 특히 아이들

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통하여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내의 예절실을 활용하여 3일간 전통예절캠프에 참가하도록 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을 익혀 동방예지국의 후손답게 평소 예절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히 절하기와 다도,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실습활동을 체험하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다도 활동 및 민속놀이 체험 활동에는 복지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게 하여 감정 분노 조절 장애로 깨어졌던 교우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가베 놀이



전통예절캠프



벽화 그리기(미술 치료)



벽화 그리기(미술 치료)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남몰래 낙서로 해결하는 아이들, 지워도 며칠 후 다시 벽면을 채우는 낙서들...

화풀이의 대상이었던 복도의 벽면을 멋지게 그림으로 바꾸는 미술 치료 활동, 무의미 했던 공간을 탐과 노력으로 채우는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내재된 욕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선풍기 몇 대에 의지하여 비지땀을 흘리며 인근 고등학교의 자원 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 2주간에 걸친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며, 격려를 통해 친구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마음을 맞추며 그림으로 빈 공간을 채웠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나도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기쁨의 환성을 질렀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나도 꿈이 필요해요 (Dream)

현재의 환경이 좋지 못해도 꿈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 하다. 그러나 꿈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하루를 소비하며 시간에 끌려 살아간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단혀서 꿈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나의 삶이 소중하게 영위되기 위한 진로 체험 활동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했다. 지역의 한 영화관의 도움으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체험과 영화 무료 관람 활동을 했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연계활동으로 실시된 체험 활동을 통해 관심이 없었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충전 나들이 (Happy)

맞벌이, 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편으로 부모님과 우리 지역 가까이의 박물관, 놀이 공원에도 한 번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역 사회 동물원의 협조로 가족이 함께하는 동물원 체험 활동을 했다. 교육 복지 대상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동물원 입장권을 지원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동물원에 처음 와 본다는 아이들의 말에 살짝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님들과 바쁘고 피로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복 충전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의 무더운 방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영화관 직업 진로 체험활동

겨울 방학을 기다리며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쉬움으로 다음 방학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어려움에 방치되고 소외된 또 다른 아이들은 채워져야 할 많은 것들로부터 결핍을 겪어야 하는 시간을 또 맞이해야 한다. 늘 부족하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저소득층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부적응 상황의 모든 책임이 학교 교육에 있다고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대할 때마다 학교와 교사들은 참으로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 책임과 헌신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가야 한다.

급하고 빠른 세태를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은 여러 체험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단기간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과 행동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학년에 입학해서 6학년 졸업까지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곧 다가올 겨울 방학을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시작한다. 🧡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거주지역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

길혜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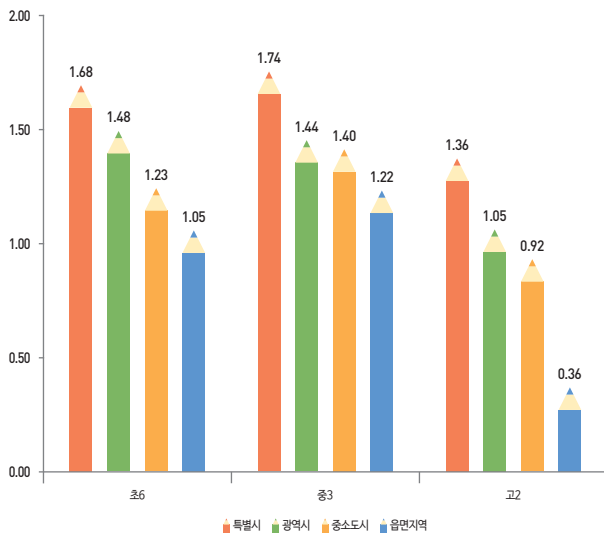
들어가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5명 중 1명이 지난 일주일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11.6.일자 기사). 더욱이, 편의점에서 식사하였다는 응답도 65.3%에 이르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학원 시간에 쫓겨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음식을 선호한다고 하기도 하였다(인사이트 2017.11.7.일자 기사).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기사와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면서 건강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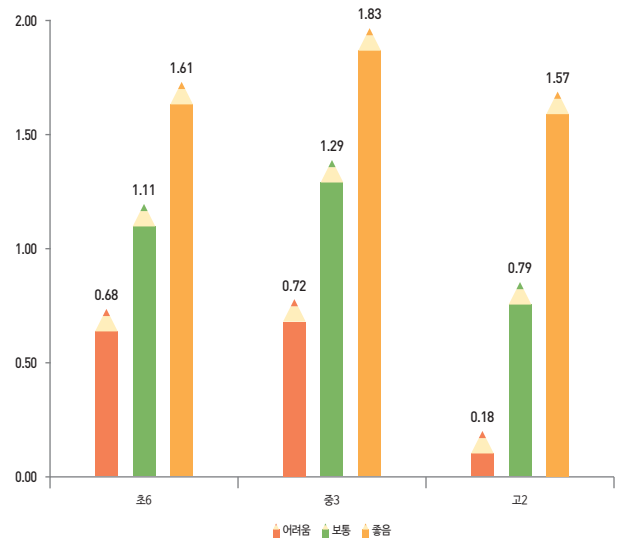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2017 KEDI 학생역량조사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¹⁾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방과 후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방과 후 교과학습 및 특기적성 관련 사교육 시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적으로 방과 후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먼저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학년과 무관하게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교과학습을 목적으로



[그림 1] 지역규모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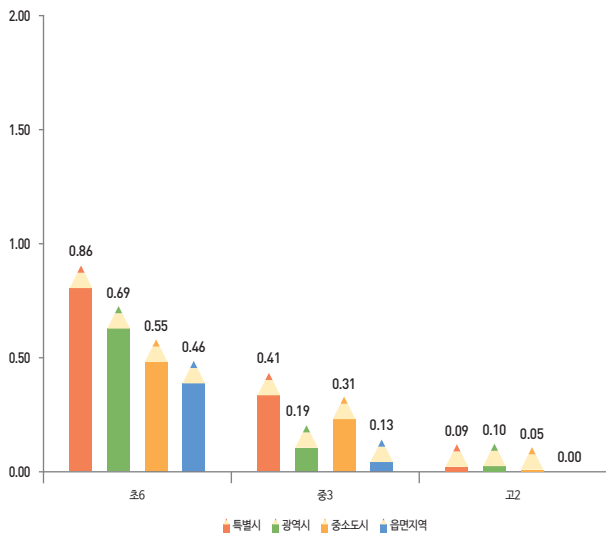
[그림 2] 가정의 경제수준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1) 「2017 KEDI 학생역량조사」는 전국의 초6부터 고2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학생역량지수를 산출하는 조사연구임.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시간을 7점 척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분 단위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예컨대 '1'의 값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고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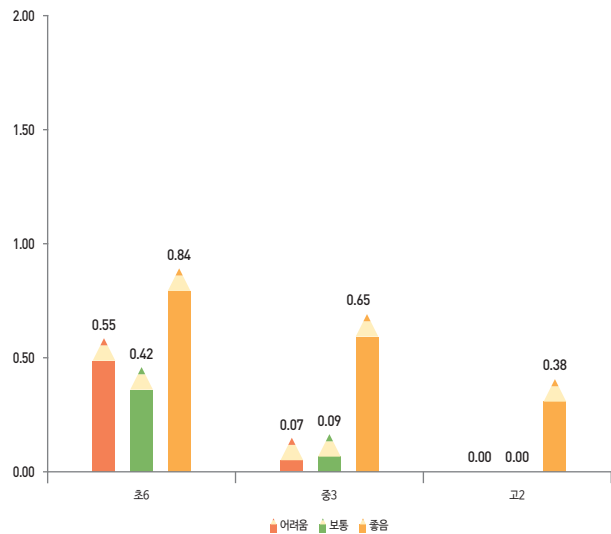


하는 사교육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2 시기에는 특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간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차이가 큰 편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교과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 차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방과 후에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을 기르기 사교육을 받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먼저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초6 시기에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특기적성 관련 사교육 시간 또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3 시기에는 특별시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고2 시기에는 관련 사교육은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은 경우 특기적성 관련 사교육 시간이 많았는데, 그 차이는 중3과 고2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림 3] 지역규모별 특기적성 관련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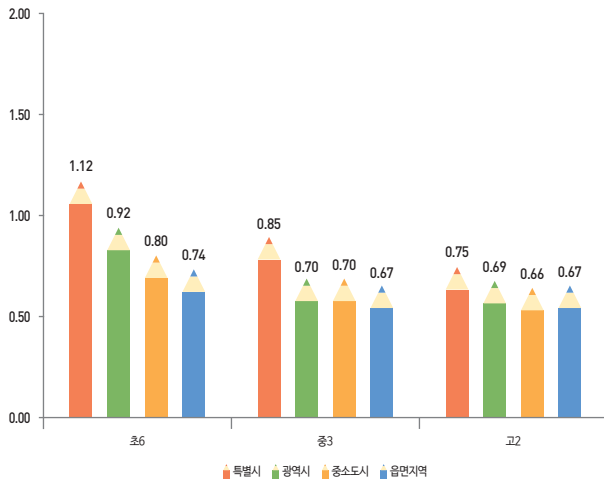


[그림 4] 가정의 경제수준별 특기적성 관련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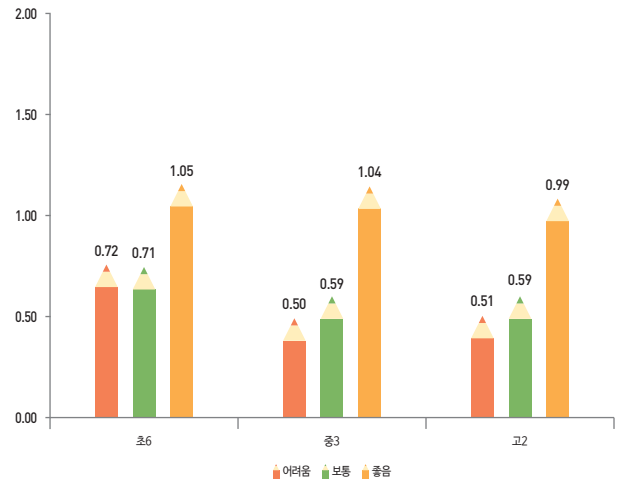
방과 후 독서, 예술 및 운동 시간

방과 후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독서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초6 시기에는 특별시와 읍면지역 거주 학생 간 독서시간의 차이가 0.38 정도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역 간

편차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어렵거나 보통이라는 학생들보다는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더 많았는데, 특히 중3과 고2에서는 그 차이가 2배가량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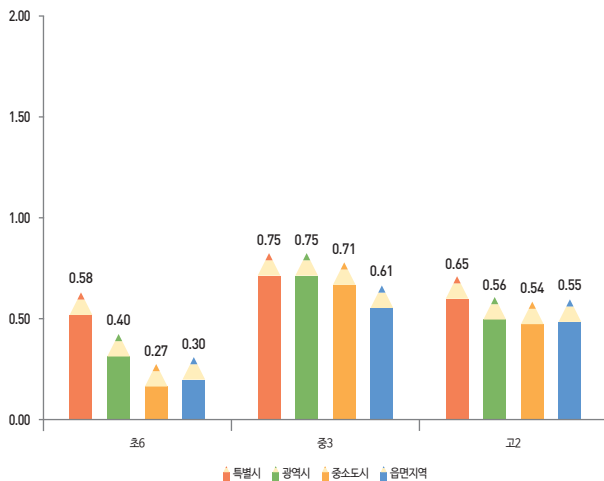
[그림 5] 지역규모별 독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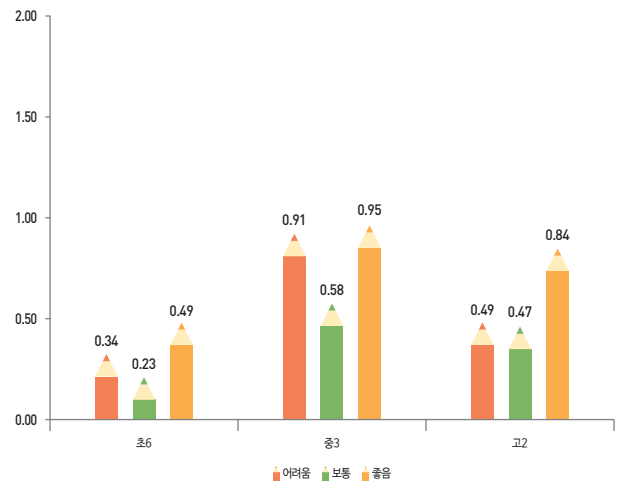
[그림 6] 가정의 경제수준별 독서시간

그리고 학교,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제외하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예술 활동을 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7], [그림 8]과 같다. 예술 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중3 때 많은 편이었는데, 해당 시기에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작은 편이었다. 반면, 초6 시기에는 특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 예술 활동 시간의 차이가

2배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예술 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어렵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예술 활동 시간이 더 많았고, 중3 시기에는 경제수준이 좋은 학생들과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그림 7] 지역규모별 예술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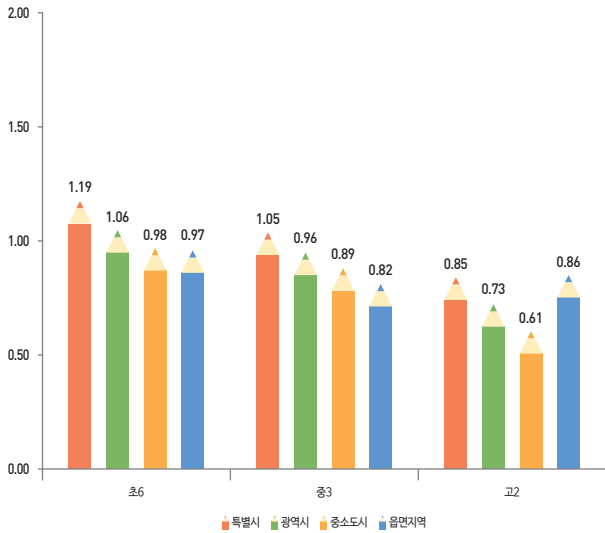


[그림 8] 가정의 경제수준별 예술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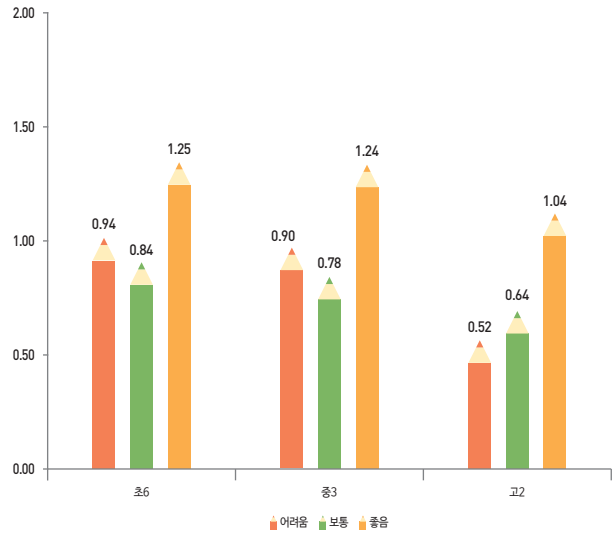


학교,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제외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먼저, 초6과 중3 시기에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작은 반면, 고2 시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운동 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또한 학교급과 무관하게

경제적인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운동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고2 시기에는 경제수준이 어려운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 간 차이가 2배 정도 나타나 상대적인 차이가 큰 편이었다.



[그림 9] 지역규모별 운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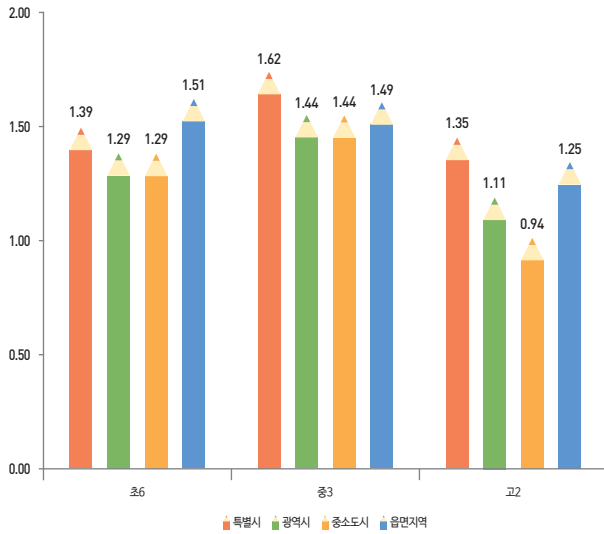


[그림 10] 가정의 경제수준별 운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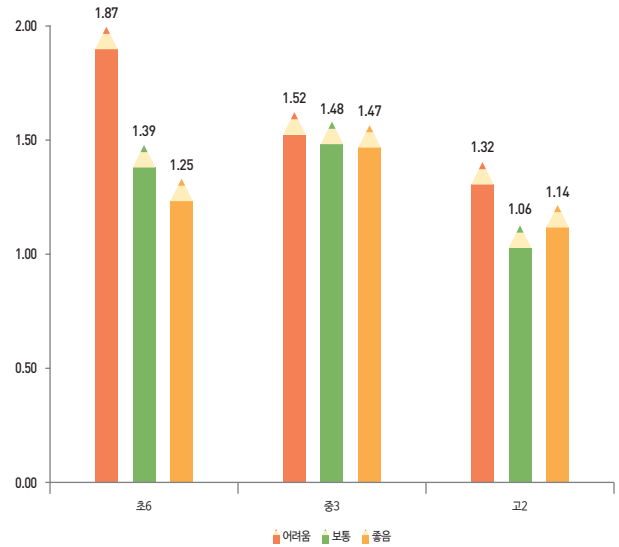


방과 후 게임(오락)을 하거나 친구와의 놀이 시간

방과 후에,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게임(오락)을 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먼저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에게서 게임(오락) 시간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과 무관하게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게임(오락) 시간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초6 시기에는 1.87 정도로 나타나 방과 후에 게임(오락)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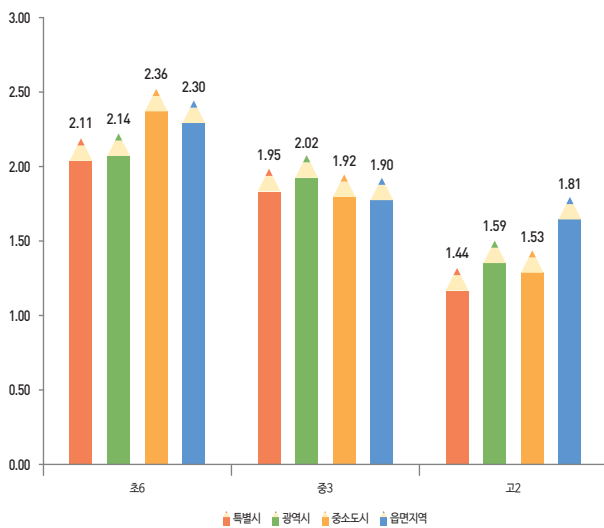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규모별 게임(오락)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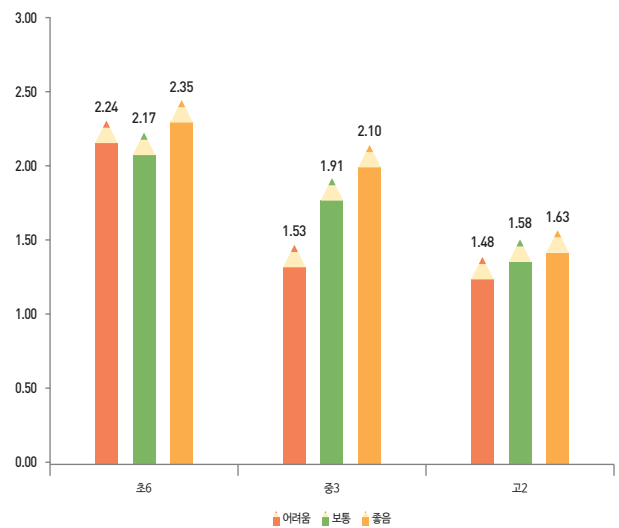
[그림 12] 가정의 경제수준별 게임(오락) 시간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놀이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놀이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학교급과 무관하게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또한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중3 시기에 그 차이가 0.57 정도로서 크게 나타났다.



[그림 13] 지역규모별 친구와의 놀이 시간



[그림 14] 가정의 경제수준별 친구와의 놀이 시간



나가며

「2017 KEDI 학생역량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거주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읍면지역이나 경제수준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과 후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한 게임(오락) 시간은 많고 독서나 특기적성을 기르기 위한 시간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심미적 감성 역량과도 직결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라난 학생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연합뉴스(2017.11.6.일자 기사).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주요 결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5/0200000000AKR20171105047500017.HTML?input=1195m>에서 11월 13일자 검색.

인사이트(2017.11.67.일자 기사). 뻥뻥한 학원시간에 쫓겨 편익점서 대충 끼니 때우는 청소년들. <http://www.insight.co.kr/news/125855>에서 11월 13일자 검색.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국문)
http://kedi.re.kr



KEDI 홈페이지(영문)
http://eng.kedi.re.kr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http://hiedupport.kedi.re.kr



교과교실제연구·자원센터
http://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http://nect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http://eduma.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http://www.afterschool.go.kr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포털시스템
http://openschool.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영재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성교육정보센터
http://insung.kedi.re.kr



인터넷 통일학교
http://tongil.moe.go.kr



자유학기제
http://freesem.moe.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choolhealth.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Wee 프로젝트
http://www.wee.go.kr



「교육개발」 웹진
http://edzine.kedi.re.kr

2017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낮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이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초·중등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세계화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